

#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2021-06

수시연구

Rebuilding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The Cases of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김형종  
이동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1-06

#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Rebuilding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The Cases of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김형종·이동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이동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부터 국제관광이 중단되어 관광 사업체와 종사자들에게 다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기간,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수단으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상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관광 재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조만간 다시 시작될 국제관광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난 기간 이루어진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검토할 필요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외의 최신 국제관광 재건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재건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내용을 다룸<sup>1)</sup>
- (재건정책 개념) 과거의 재건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 사업체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 재건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중단이 오래되어 관광시장에서 사업체와 인력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임
- (보고서 내용) 범지구적인 국제관광 시장의 현황과 전망, 영국·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환경과 재건정책, 국가별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 코로나19 초기에는 국제관광의 재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관광산업에서 인력이 이탈하고 사업체의 영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제관광 재개와 더불어 사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

## 나. 연구 대상·범위 및 방법

### 1) 연구 대상: 국제관광 재건정책

- 국제관광 정책을 출입국 중심으로 논의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간의 국제관광 중단으로 관광 사업체와 인력의 시장 이탈이 나타나고 있어 지원책 검토도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이전에 경험한 국제관광 충격들은 911 테러나 사스처럼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기적인 국제관광 중단은 처음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출입국 정책을 넘어서 관광시장에 대한 지원책까지 고려하는 ‘국제관광 재건정책’에 대한 국외 사례의 조사·검토가 요구됨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재건정책은 과거의 국제관광 재개정책을 포괄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정책 영역과도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
  - 영국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국제관광 회복을 넘어서, 국제관광 관련 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혁신적·생산적·탄력적 산업이 되도록 지원 정책 수립(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

### 2) 시간적·공간적·내용적 연구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코로나19 이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되, 비교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데이터도 시간적 범위에 포함

#### ② 공간적 범위: 영국·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제관광 환경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국가(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들로 공간적 범위 한정
  -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항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국가<sup>2)</sup>
  - 한국처럼 소득 수준이 높고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sup>3)</sup>

---

2) 우리나라는 반도국가(半島國家)이나 남북이 분단되고 상호간 물리적 이동이 단절된 상황으로, 사실상 도서국가(島嶼國家)와 유사하여 방문 관광객 대부분은 선박보다 항공을 이용하여 입국하고 있음

3) 국제통화기금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경제지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등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

- 조사 시점에서 연구 대상인 국제관광 재건정책이 명시적으로 수립된 동시에 웹이나 서적 등의 형태로 외부 공개하며 관련 데이터도 입수 가능한 국가
- 영국·아일랜드는 국경 개방에 적극적인 반면, 호주·뉴질랜드는 엄격한 국경 봉쇄를 실시하는 등 차별성이 있어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

## ② 내용적 범위

### ■ 국제관광 환경

- 한 국가가 특정한 국제관광 재건정책을 실시하는 이면에는 외부적인 요인,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함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경제상황 제시

### ■ 출입국 정책

- 코로나19 조건 아래에서 국제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트래블 버블, 백신 인증서 및 신호등 체계와 같은 새로운 출입국 정책과 그에 따른 국제 관광객 변화 분석
- 과거에는 비자 발급이 출입국 정책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기간과 같은 기술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

### ■ 관광사업체 지원책

- 과거에는 일부 국가나 지역으로 피해가 한정되어 다른 지역과의 국제관광으로 위험을 일부 회피하는 일이 가능하였음(예: 한일 무역분쟁 → 베트남 관광 증가)
- 코로나19로 모든 지역과의 국제관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관광사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일시적인 위험에 처한 역량이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피한 상황
- 다만 역량이 미흡한 사업체가 지원받거나 관광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적 인센티브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해외 사례의 검토가 필요함

### ■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최신 통계·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수집

당하며,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 민주적인 선거, 행정체계 등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므로 외부적 조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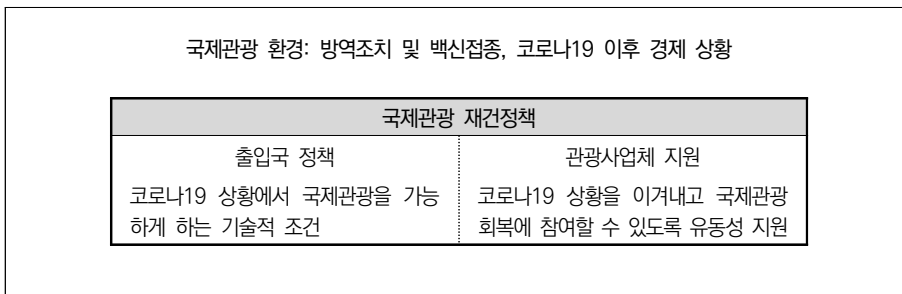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 국가의 상황 변화 파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설문 같은 형태의 공식통계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다수 관광객의 입국 수단이 항공편인 국가들로 대상을 제한하고, 관련한 최신 데이터를 입수하여 제시할 계획

###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등을 필요한 파트별로 적용
- 코로나19 데이터 및 국제관광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분석
  -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 플랫폼 등 활용
- 국제기구(OECD, UNWTO 등)의 경제·국제관광 회복 시나리오 분석
  - 국제기구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정책 보고서, 시나리오 분석 및 보도자료 활용
- 개별 국가의 국제관광 환경(방역조치,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제상황 등) 분석
  - 개별 국가 통계기구,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정책 보고서, 신문기사 활용
- 개별 국가의 국제관광 재건정책(항공노선, 검역, 소비자신회 회복 등) 분석
  - 개별 국가 정부부처의 국제관광 관련 재건정책 동향 문건 및 보도자료
  - 국가별 특수 정책사례 소개 및 국제관광·여행 측면에서의 결과 분석

### 다. 본 연구의 구조

- 본 연구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 2. 국제관광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가. 국제관광 시장 현황

#### 1) 국제관광 피해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 범지구적인 국제 관광객 감소가 74%에 달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의 국제관광 충격이 현재도 진행중
  - 코로나19 이전에 국제관광 시장에 충격을 준 사례로 911 테러, 사스(SARS), 글로벌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of 2007-2008)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충격들은 국지적이었던 반면, 코로나19는 범지구적으로 국제관광을 사실상 중단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함

#### 2) 국제관광 현황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여행 제한지역 지도(COVID-19 Travel Regulations Map)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제여행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분적으로 국제관광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국제관광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 3)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현황

- 2021년 9월 기준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진행되어 누적 확진자는 계속 증가중
- 2021년 9월 30일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233,742,102명, 누적 사망자 4,782,950명으로 사망률(사망자/확진자)은 약 2% 수준
  - 전년(‘20.9.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45,523,083명, 누적 사망자 1,186,596명 수준이었으며(신용식, 2020), 누적 확진자는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가
- 다행히 백신 접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약 45.4%,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33.7%에 달함
  - 작년에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던 백신 접종을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
  -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는 각각 일평균 0.24%, 0.22% 수준으로 증가

## 나. 국제관광 시장 전망

- 세계관광기구(UNWTO, 2021)는 2021년의 전체적인 국제관광이 2020년의 감소와 유사한 수준인 2019년 대비 63% 또는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Air Transport Bureau, 2021)는 민간 항공의 회복 수준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늦게 회복한다고 전망

## 다. 소결

- 국제관광 시장의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제관광 시장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국지적 충격인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911 테러의 경우에도 관광객 수의 회복에는 각각 14개월, 29개월, 42개월이 걸린 만큼(UNWTO, 2020), 글로벌 충격인 코로나19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개연성도 존재
- 다행하게 백신 접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국제관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국제관광 피해는 그 범위와 규모 모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
  - 국제관광과 관련된 사업체들은 국경봉쇄로 인해 사실상 영업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즉시적인 영업활동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이 가장 느릴 전망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함을 시사
-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국경 개방과 함께 국제관광 사업체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실시하여야 빠른 국제관광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국제관광 재개정책이 아니라 재개정책과 지원책이 결합된 재건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귀결
- 이하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4개 국가의 국제관광 환경과 재건정책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 3.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가.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환경

##### 1)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 ① 영국의 방역조치 및 백신접종

- 영국 방역조치의 특징은 수시로 락다운(lock down) 해제를 시도하였다는 점
  - 2020년 5월 10일,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의 락다운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제재 완화조치(reopening)는 5월 13일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9월에는 교육시설의 재개도 이루어졌음
  - 2021년 상반기에는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 발생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021년 3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되었음
- 영국은 비교 대상인 다른 선진국보다 이른 시기인 2021년 1월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2021년 9월 30일 현재 1차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각각 71.6%와 65.8%에 달함

###### ② 아일랜드의 방역조치 및 백신접종

-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영국에 비해 강한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나, 2021년 4월부터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치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위드 코로나’ 선언 상태<sup>4)</sup>
- 아일랜드는 2021년 1월말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30일 현재 1차 접종 비율은 75.7%, 접종 완료 비율은 73.9%를 기록하고 있음

##### 2) 경제상황

###### ① 영국의 경제상황

- 영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락다운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락다운 해제를 시도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 역시

4) ‘위드 코로나’는 한국 언론에서 애용하는 표현으로,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위드 코로나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living with coronavirus’를 들 수 있음

2020 12월 8일 전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한 바 있음

- 코로나19 이전 1%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영국 경제는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2분기에는 -23%에 달하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전체로는 -9.8% 성장률을 기록함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락다운의 여파로 민간 소비와 민간 지출이 2020년 2분기 각각 -23%, -21% 감소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
  - 영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GDP 대비 12.3%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6%와 5.3% 수준의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인 -1.1%과 비교한다면, 영국이 락다운 해제에 적극적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 ② 아일랜드의 경제상황

- 코로나19 이전 활발한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2017년 9.4%, 2018년 8.9%, 2019년 5.9%의 고성장을 이어오던 아일랜드도 2020년에는 2.5%까지 성장률 저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 성적
  - 따라서 국제관광 재개에 적극적일 유인이 적으며, 유럽 연합 소속국으로 자유로운 출입국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이유로 보임
- 아일랜드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소비의 증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 실시
- 국제통화기금은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된다는 가정 하에 아일랜드 경제가 2021년 4.2%, 2022년 4.8%로 경제가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나.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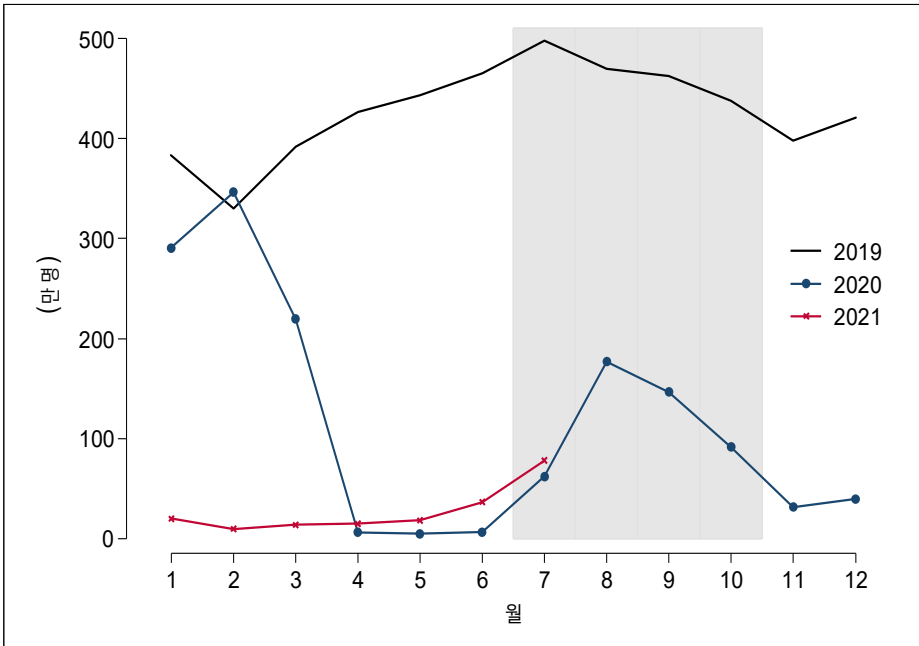
### 1) 영국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① 영국의 출입국 정책

- 영국 출입국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단방향 정책을 실시함
- 영국의 출입국 정책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전면 봉쇄에 가까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트래블 버블, 신호등 체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국제관광 재개를 시도
  - 영국 트래블 버블의 공식 명칭은 트래블 회랑(Travel Corridors)으로, 면제 국가나 지역(exempt countries and territories)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self-isolate)를 면제하였음
  -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는 각 국가를 녹색(green), 황색(amber), 적색(red) 국가군으로 삼등분하고, 각각 별도의 출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시스템
-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표한 일일 항공여객도착(air passenger arrivals) 자료를 재구성하여 산출한 비영국 국적자의 항공여객도착을 인바운드 관광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
  - 2019년 비영국 국적자 항공 여객은 약 5,797만명, 방영 관광객은 4,086만명이며, 2020년 비영국 국적자 여객은 1,437만명, 관광객은 1,110만명 수준으로 항공여객 대비 관광객은 약 70-77% 수준(Newell, 2021; Osborn, 2021)
- 2020년 7월 10일자로 트래블 회랑이 실시되어 2020년 7-8월에는 상당한 수준의 관광객 회복이 나타났으며, 항공 여객은 각각 '19년 대비 약 10.4%, 18.7% 수준
- 2021년 5월 17일에는 신호등 체계가 도입되어 6-7월 모두 전년도보다 국제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7월에는 '19년 대비 약 10.7% 수준까지 회복
  - 다수의 국가에서 방문한 관광객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한 단방향 트래블 버블보다, 차등적인 입국 시스템을 적용한 신호등 시스템에서의 관광객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특기할만함
  - 그러나 2020년도와 2021년도의 백신 접종자가 상이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트래블 버블에 비해 신호등 시스템이 우월한지는 불명확

[그림] 영국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단위: 만명)



자료: 영국 내무부(Newell, 2021)

- 2021년 10월 4일부터 신호등 체계도 폐지되고, 국가 분류를 적색 국가군(red list) 과 그 외 국가(rest of world)로 단순화하는 새로운 출입국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② 영국의 관광사업체 지원

- 영국은 관광 사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게 고용, 대출, 세제 지원 및 정부 보조로 요약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할인 캠페인과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 실시
- 고용 지원(Employment support schemes)
  - 코로나 직업 유지 프로그램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정부 지원으로 관광사업체의 고용 유지
  - 자영업 임금 지원 프로그램 (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 SEIS): 자영업자들의 임금을 지원

## ■ 대출 프로그램

- 사업 회복 지원 대출 프로그램 (Bounce Back Loans Scheme; BBLS): 모든 사업자에게 50,000 파운드나 총매출액의 25% 대출(정부 100% 보증)
- 코로나 바이러스 영업 중단 대출 지원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BILS): 총매출이 4천5백만 파운드 이하의 사업에 대해 최대 5백만 파운드까지 대출(정부 80% 보증)

## ■ 세제 지원 및 정부 지원금

- 영업세(business tax) 면제, 10,000-25,000 파운드의 현금 지원금 등 지원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상호 동의된 기간 동안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HMRC Time to Pay' 서비스 확대<sup>5)</sup>
-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접객업, 숙박업, 관광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로 경감시키는 조치 시행

## 2) 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① 아일랜드의 출입국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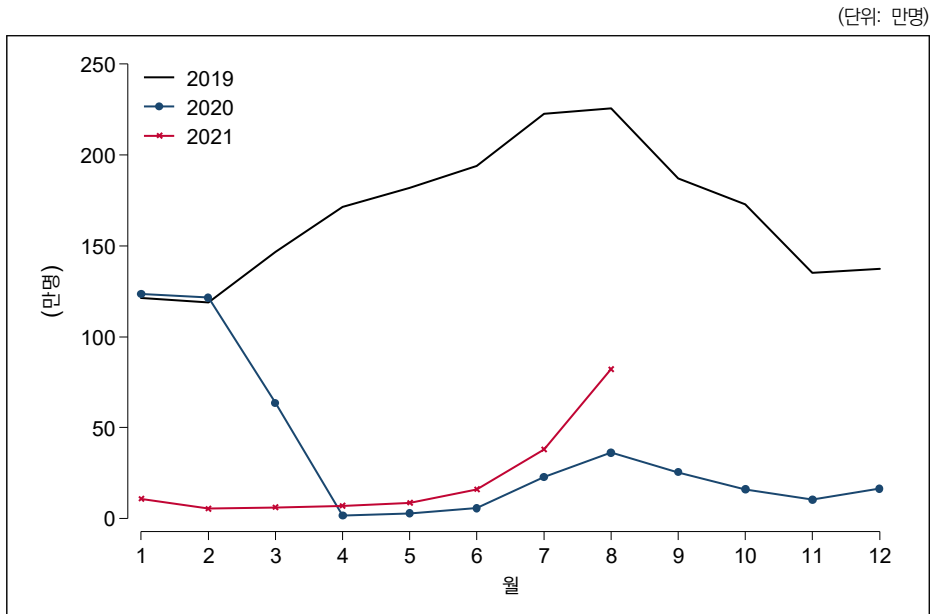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출입국 정책이 유럽연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양호하여 영국처럼 적극적으로 국내의 락다운을 해제하려는 움직임도 없었음
- 아일랜드 인바운드 추이는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n.d.)에서 공개하는 국제 여행(overseas travel) 통계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sup>6)</sup>
- 2020년 7월 유럽 연합이 역외 일부 국가에 대해 국경 개방을 실시하면서(신용석, 2020), 국제 관광객 증가가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다시 봉쇄로 전환

5) 'HMRC'는 영국 국세청(정확하게는 국관세청)의 약칭으로 정식 명칭은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6) 현재 입수한 아일랜드의 최신 통계에는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한 국제 관광의 비중은 낮은 편임

- 2021년 7월 19일자로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Digital COVID Certificate; DCC)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1년 7월과 8월에는 국제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2021년 8월 인바운드 관광객은 약 78만명으로 '19년 대비 35.6%까지 회복

[그림] 아일랜드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n.d.)

## ② 아일랜드의 관광사업체 지원

- 아일랜드는 대출이나 세제지원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많음
- 고용 지원
  - 고용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Employment Wage Subsidy Scheme; EWSS): 고용주에게 직원 급여를 보전(2021년 말까지 시행)
  - 팬데믹 실업 수당(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PUP):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은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1년 7월 8일 이후 신규 지원은 불가능하며 2021년 9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감액중
- 세제 지원

- 부가가치세(VAT)를 9%로 낮추고,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의 조치 시행
- 아일랜드 정부의 주된 관광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코로나 제재 지원 프로그램 (COVID Restrictions Support Scheme; CRSS)
    - 2021년 6월 29일 실내接客업종 운영 금지, 제한에 대해 해당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말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에 지원한接客업종 사업에 대해 1주일에 10,000 유로씩, 최대 3주 동안 30,000 유로 지급
  - 영업 재개 지원 프로그램(Business Resumption Support Scheme)
    -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아서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새롭게 제안된 프로그램
    - 코로나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취약하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 매출이 75% 이상 감소한 지원 사업체의 매출액 일정 부분 보전
- 코로나 피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Assistance Scheme for COVID; SBASC)
  - 이는 코로나 제재 지원 프로그램(CRSS), 관광업 지속 프로그램(Tourism Business Continuity Scheme)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고정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함
  - 최소 총매출액이 50,000 유로인 사업체는 4,000 유로 기금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됨
  - 또한 총매출액이 20,000 유로- 49,999 유로 사이인 기업은 1,000 유로의 기금을 받을 수 있음
- 기업 지원 기금 (Enterprise Support Grant)
  - 영업을 재개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재개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000 유로의 특별 기업 지원 기금을 지급

## 4.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가.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환경

#### 1)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 ① 호주의 방역조치 및 백신접종

- 호주 방역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입국조차 불허할 정도로 정부가 출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특징이 있음
  - 해외 여행은 금지되어 있고, 뉴질랜드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시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로부터의 입국자는 2020년 10월 16일 이후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2021년 4월 19일 이후 상호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체결하고 있음
- 그러나 2021년 9월 13일 호주 내무부에서 기존의 입국 서류들을 대체하는 디지털 여객 신고서(Digital Passenger Declaration)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여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Andrews, 2021)
  - 동 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상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포함
- 2021년 9월 30일 현재 호주의 1차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의 비율은 각각 64.8%, 44.2% 수준

##### ② 뉴질랜드의 방역조치 및 백신접종

- 뉴질랜드 역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출입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실시
  - 이는 양국이 과거부터 밀접한 특수 관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7월 현재 국경 폐쇄와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 뉴질랜드 역시 올해 11월 말경에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접종 인증서(digital vaccination certificates)를 도입할 계획(Ministry of Health, 2021)

- 뉴질랜드의 1차 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각각 67.8%, 39.6% 수준

## 2) 경제상황

### ① 호주의 경제상황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 꾸준히 2%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오던 호주 경제는 2020년에는 -2.9%의 역성장을 기록
  - 영업 제재 조치가 시작되던 2020년 1분기 1.4%로 떨어지기 시작해, 2분기에는 -6.2%의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
  -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대부분 민간소비의 둔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호주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호주 경제는 2021년에는 4.5% 수준의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민간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정부 소비는 7% 상승

### ② 뉴질랜드의 경제상황

- 코로나19 이전 연 3%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약 1.0% 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코로나 확진자 수는 성공적으로 관리한 반면, 강력한 산업 제한조치와 락다운 정책의 결과 큰 폭의 성장 저하를 감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2020년 -4.4%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4%, -3.5% 수준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나.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1) 호주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① 호주의 출입국 정책

- 인바운드 관광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와는 달리, 호주는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모든 비시민(non-citizen)과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였으며(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0), 해당 조치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따라서 호주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는 2020년 3월 이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10월 6일 현재, 호주를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함(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1)
  - 호주 시민(Australian citizens)
  -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s)
  -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s)
  - 적어도 출발하기 14일 전까지 뉴질랜드에 있던 여행객(travellers who have been in New Zealand for at least the 14 days before the date of departure)<sup>7)</sup>
- 예외적으로 뉴질랜드와는 2021년 4월 19일 'Trans-Tasman'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였으나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sup>8)</sup>
  -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1)는 뉴질랜드와의 격리 면제 여행(quarantine free travel)을 2021년 10월 12일 오후 11:59분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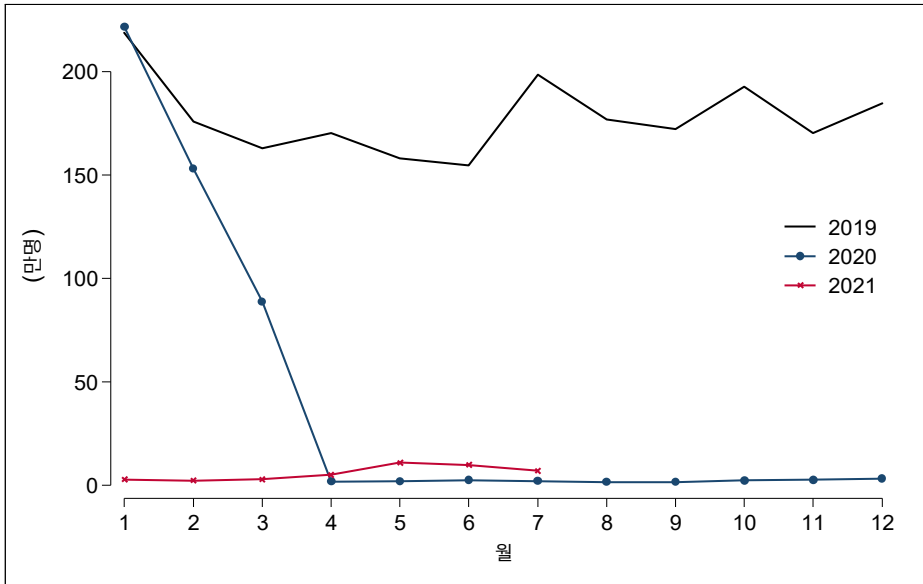
7) 쿡 제도(Cook Islands)와 니우에(Niue)는 여기 포함되지 않음

8)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바다가 'Tasman Sea'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



[그림] 호주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단위: 만명)



자료: BITRE (2021)

## ② 호주의 관광사업체 지원

- 호주는 중앙정부와 함께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음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1)<sup>9)</sup>
- 또한 국제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회복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
-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Recovery for Regional Tourism Program)
  - 내국인들의 관광 수요를 높이고, 해외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광·항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 2021년 1월 호주 정부는 12억 달러 상당의 관광 항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8십만여 이상의 항공편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여 국내 항공 여행의 수요를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9)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1), Greig and Watkins (2020) 등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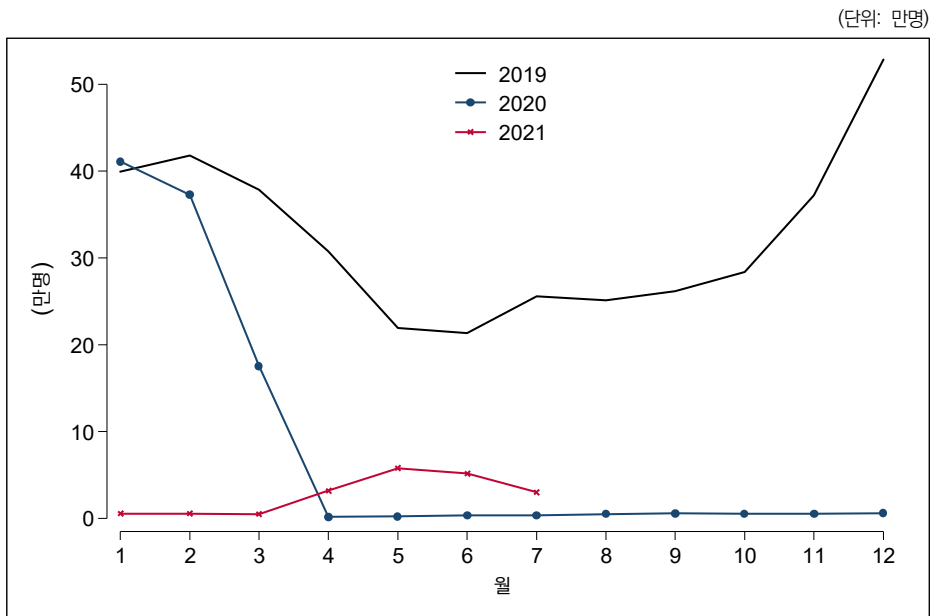
- 포스트 COVID-19 시기의 미래 관광산업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Develop your workforce)도 제공하고 있음
- 중앙정부 세제 지원
  - 미납세액 이자 면제·유예, 분할납부 등(Australia Taxation Office, 2021)

## 2) 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① 뉴질랜드의 출입국 정책

- 뉴질랜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국경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뉴질랜드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n.d.)

- 뉴질랜드는 2021년 4월 19일 호주의와 트래블 버블 이외에는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나, 동 트래블 버블의 영향으로 2021년 4월 이후 인바운드 반등세가 나타남
  - 호주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양 국가의 평균적인 인바운드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으로, 2019년 호주의 월 평균 인바운드는 약 178만명인 반면에 뉴질랜드의 인바운드는 약 32만명 수준

## ② 뉴질랜드의 관광사업체 지원

- 뉴질랜드는 자국 관광 사업체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시기 관광사업체의 공급 능력 온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특징이 있음
- 뉴질랜드는 2020년에 4억 달러 규모의 관광 회복 패키지(Tourism Recovery Package)를 시행한데 이어, 2021년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회복, 그리고 재건 계획(Tourism Communities: Tourism Support, Recovery, and Re-set Plan)을 시행하고 있음<sup>10)</sup>
- 2020년 지원은 전략적 관광자산 보호 프로그램 (Strategic Tourism Assets Protection Program; STAPP), 관광 전환 프로그램 (Tourism Transition Programme), 디지털 역량 지원(Digital Capability), 지역 이벤트 기금 (Regional Events Fund) 등으로 구성
  - 여기서 전략적 관광자산이란 관광 사업체(tourism businesses), 인바운드 여행사(Inbound Tour Operators; ITOs), 지역 관광기구(Regional Tourism Organisations; RTOs)를 의미
  - 전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관광자산 보호 프로그램(이하 STAPP)은 보조금(STAPP Grant), 대출(STAPP Loans), 지역관광기구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외의 특징으로 지역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성격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는 관광업 종사자 중 마오리족(Māori)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
  - 1,000만 달러 규모로 뉴질랜드 마오리 관광 지원(New Zealand Māori Tourism)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 주된 사업 내용은 마오리 관광 여행사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체 지원, 연구, 멘토링 등
- 2021년의 관광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직접적으로 5개의 지역 사회(community)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

10) <https://www.mbie.govt.nz/immigration-and-tourism/tourism/tourism-recovery/tourism-communities-support-recovery-and-re-set-plan/>

- (대상 지역) 퀸스타운 레이크(Queenstown Lakes), 사우스랜드(Southland), 카이코라(Kaikōura), 맥켄지(Mackenzie), 웨스트랜드(Westland)
- 이 지역들은 국제관광 의존도가 높아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컸음

#### ■ 대출 프로그램

- 소기업 현금 흐름 스킴(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중소기업 또는 조직에 연 3% 금리로 1만 뉴질랜드 달러 + 1,800 뉴질랜드 달러 × 상근 등가 근로자(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대출(Inland Revenue, 2021)

#### ■ 세제 지원

- 소득세액 공제(income tax deductions), 납부 유예 등(Inland Revenue, 2021)

## 5. 정책비교 및 시사점

### 가. 정책비교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출입국 정책을 펼친 영국·아일랜드가 호주·아일랜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은 경향성 관측
  - 국경을 개방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국내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락다운과 경제적 피해로 국경 개방에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sup>11)</sup>
- 또한 국경 개방에 있어 신호등 체계와 백신 인증서 가운데 어느 정책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인원만이 이동하는 트래블 버블에 비해서는 인바운드 회복의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보임
  - 연구 대상인 모든 국가는 백신 인증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라는 점도 중요
- 영국·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 사례를 비교하면, 국경 개방의 적극성은 경제적 피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 연구 필요

- '20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영국은 적극적으로 국경 개방을 시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경제 성적이 좋은 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는 국경 개방에 소극적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국제관광을 재개하였던 2020년도에도 일정한 수준의 인바운드 변화를 보임
- 또한 아일랜드는 2021년 7월부터 인바운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의지와 관련이 낮은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 도입의 영향으로 보임
- 경제적 피해가 작은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광 사업체의 막대한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임
- 모든 국가가 관광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재정을 사용한 직접적인 지원(피해보상, 고용지원 등)과, 세제상 혜택(세금 유예, 일시적인 감세 등), 대출 보증처럼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한 만큼, 관광산업 정책에서도 지원 주체나 지원 목적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차이점이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world-leading)하는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으로 재건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 특히, '21.10월 시점에서 모든 대상 국가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으며 국경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까운 시기에 국경을 개방할 예정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서도 고려가 필요함

## 나. 시사점

### ① 부분적인 국경 개발과 국제관광 재개

- 분석 대상인 모든 국가는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드 코로나 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연내에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에 걸맞는 수준의 국경 개방을 고민할 필요
  - 그 동안 강한 수준으로 국경을 통제하던 호주·뉴질랜드도 백신 인증서 도입중

② 국제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인증서 및 상호 인정

- 양 국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제한된 인원만 이용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보다, 단방향으로 검역·격리를 차별화하는 영국의 신호등 체계나 아일랜드와 같은 상호 백신 인증서 인정을 고려할 필요
  - 두 국가 모두 호주·뉴질랜드에 비해 빠른 국제관광 회복이 나타남
-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백신접종 상호 인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시범적으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코로나 인증서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과의 상호 인정은 방한 관광객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되면서, 향후 완전한 국제관광 재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외국 관광객들의 백신 접종여부를 백신 인증서로 확인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함

③ 관광 분야에 특화된 추가 지원 및 인센티브 설계

- 우리나라가 고용, 대출, 세제 모든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피해가 제일 심각한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동시에 관광 분야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와 정책이 필요

④ 회복 가능성 높은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 마련

- 또한 관광산업 지원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원이나 일회성의 지원 보다는,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계기업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

〈표〉 국가별 국제관광 재건정책과 국제관광 최신 동향

(단위: 개월, %)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20년-'21.9월 코로나 확진자	7,843,887 (11.50%)	389,932 (7.83%)	107,181 (0.42%)	4,292 (0.09%)	313,773 (0.61%)
'20년 경제성장률	-9.8%	2.5%	-0.3%	1.0%	-0.9%
백신 인증서	도입 없음 (정차권 반대)	既도입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도입 예정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도입 예정 (Digital Vaccination Certificates)	-
출입국 정책	트래블 회랑 신호등 체계 적색국가 목록	EU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	전면 봉쇄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	전면 봉쇄 (뉴질랜드-호주 트래블 버블)	전면 봉쇄
인바운드 증감					
'20.1분기	-12.8%	-20.2%	-16.9%	-19.8%	-46.9%
'20.2분기	-98.4%	-98.1%	-98.7%	-99.0%	-97.9%
'20.3분기	-83.4%	-86.7%	-99.1%	-98.2%	-95.7%
'20.4분기	-85.2%	-90.4%	-98.5%	-98.6%	-95.9%
'22.1분기	-91.4%	-94.2%	-94.7%	-98.7%	-94.8%
'21.2분기	-93.1%	-94.2%	-98.7%	-80.9%	-95.2%
'21.3분기	-89.3%	-73.2%	-96.5%	-88.2%	-94.1%
관광사업체 지원					
고용	○	○	○	○	○
대출	긴급대출 및 정부보증	-	-	긴급대출 및 정부보증	코로나19 대출
세제	영업세 면제, 부가세·소득세 유예	부가세율 할인, 부가세 납부 유예	분할납부, 납부 유예 등, 지역(주)별로 지원 상이	소득세 공제 납부 유예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 지원금	○	○	○	○	○
그 외	지역사회 및 지역관광 추진조직 지원	-	-	마오리족 지원	
위드 코로나	선언	선언	선언	선언	×
백신 접종률 (접종 완료)	71.6% (65.8%)	75.7% (73.9%)	64.8% (44.2%)	67.8% (39.6%)	76.7% (50.1%)

자료: 출입국 정책 인바운드의 각 분기별 수치는 '19년 동기대비 변화를 의미함. 단, '21년 3분기의 경우 데이터상 비교 가능한 최대 시점이 기준으로, 영국은 7월, 아일랜드는 8월, 호주는 7월, 뉴질랜드는 7월, 한국은 8월까지 포함함. 인바운드는 국가에 따라 항공 여객 또는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의미. 음영은 출입국 정책에 의해 국제관광객이 증가한 기간을 의미.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용 보조금으로 명칭 통일. 백신 접종률은 '21.9.30일 기준.





---

# 목차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구성	5
1. 연구 대상 및 범위	5
2. 연구 방법	7
3. 연구의 논리적 구조	8
<b>제2장 국제관광 시장의 현황과 전망 .....</b>	<b>9</b>
제1절 국제관광 시장 현황	11
제2절 국제관광 시장 전망	17
제3절 소결	19
<b>제3장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b>	<b>21</b>
제1절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환경	23
1.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23
2. 경제상황	27
제2절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33
1. 영국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33
2. 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38
<b>제4장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b>	<b>45</b>
제1절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환경	47
1.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47

2. 경제 상황	51
제2절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58
1. 호주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58
2. 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62
<b>제5장 정책비교 및 시사점 .....</b>	<b>67</b>
제1절 정책비교	6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5

<b>참고문헌 /</b>	<b>79</b>
---------------	-----------

<b>ABSTRACT /</b>	<b>83</b>
-------------------	-----------

---

## 표 목차

〈표 2-1〉 국제관광 충격 사례	12
〈표 3-1〉 아일랜드 팬데믹 실업 수당	42
〈표 4-1〉 호주의 관광산업과 전체 경제 피해 비교	54
〈표 4-2〉 뉴질랜드의 2020년 관광 회복 패키지 예산	64
〈표 5-1〉 국가별 국제관광 재건정책과 국제관광 최신 동향	74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논리적 구조	8
[그림 2-1] 2019년과 2020년의 국제 관광객	11
[그림 2-2] 국제관광 회복 기간	12
[그림 2-3] UNWTO 대쉬 보드	13
[그림 2-4] 여행 제한지역 지도 (9월 23일 기준)	14
[그림 2-5] 범지구적 코로나19 발생 현황	15
[그림 2-6] 범지구적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15
[그림 2-7] 2020년 세계관광기구 시나리오	17
[그림 2-8] 2021년 세계관광기구 시나리오	18
[그림 2-9] 2021년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 시나리오	18
[그림 3-1] 영국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24
[그림 3-2] 아일랜드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26
[그림 3-3]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	27
[그림 3-4] 영국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28
[그림 3-5] 영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29
[그림 3-6] 아일랜드 실질 GDP 성장률	30
[그림 3-7] 아일랜드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31
[그림 3-8] 아일랜드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32
[그림 3-9] 영국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35
[그림 3-10] 아일랜드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39
[그림 4-1] 호주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48
[그림 4-2]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50
[그림 4-3] 호주의 실질 GDP 성장률 (상: 분기 성장률, 하: 연 성장률)	52
[그림 4-4] 호주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52
[그림 4-5] 호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53
[그림 4-6] 뉴질랜드 실질 GDP 성장률 (상: 분기 성장률, 하: 연 성장률)	56
[그림 4-7] 뉴질랜드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56

[그림 4-8] 뉴질랜드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57
[그림 4-9] 호주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58
[그림 4-10] 뉴질랜드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62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국제관광 잠정 중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부터 국제관광이 중단되어 관광 사업체와 종사자들에게 다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sup>12)</sup>
-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기간(quarantine),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수단으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상태

### 나. 코로나19 백신의 등장으로 상황 변화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관광을 재건하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동시에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음
  - 백신 접종자에게 돌파감염(breakthrough infection)이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광 재개는 많은 국가에서 단순한 시간문제의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
  - 머크사의 'Molnupiravir'를 필두로 전 세계에서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과 임상 실험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

---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약어로는 'COVID-19'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하여 왔으며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19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코로나19로 통칭함

## 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아래의 국제관광 정책 분석 필요

-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상당부분 감소된 상태이나 상황의 완전한 종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관리와 방역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 따라서 당분간은 국제관광의 전면 재개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통제와 관리아래 국제관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
  - 과거에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과 면역 여권(immunity passport)가 각각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지만(신용석, 2020), 현재는 트래블 버블이 수시로 중단되거나(McClure, 2021) 면역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트래블 버블이 추진되고 있음(고재원, 2021)
  - 또한 각국이 처한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적 피해 수준이 상이하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의 수준과 국제관광 재건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외의 최신 국제관광 재건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재건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내용을 다룸<sup>13)</sup>
  - (재건정책 개념) 과거의 재건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 사업체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 재건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중단이 오래되어 관광시장에서 사업체와 인력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임
  - (보고서 내용) 범지구적인 국제관광 시장의 현황과 전망, 영국·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환경과 재건정책, 국가별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3) 코로나19 초기에는 국제관광의 재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관광산업에서 인력이 이탈하고 사업체의 영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제관광 재개와 더불어 사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한 상황

## 제2절 연구의 구성

---

### 1. 연구 대상 및 범위

#### 가. 연구 대상: 국제관광 재건정책

- 국제관광 정책을 출입국 중심으로 논의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간의 국제관광 중단으로 관광 사업체와 인력의 시장 이탈이 나타나고 있어 지원책 검토도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이전에 경험한 국제관광 충격들은 911 테러나 사스처럼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기적인 국제관광 중단은 처음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출입국 정책을 넘어서 관광시장에 대한 지원책까지 고려하는 ‘국제관광 재건정책’에 대한 국외 사례의 조사·검토가 요구됨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재건정책은 과거의 국제관광 재개정책을 포괄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정책 영역과도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
  - 영국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국제관광 회복을 넘어서, 국제관광 관련 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혁신적·생산적·탄력적 산업이 되도록 지원 정책 수립(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

#### 나. 시간적 범위: 코로나19 이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되, 비교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데이터도 시간적 범위에 포함

## 다. 공간적 범위: 영국·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제관광 환경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국가(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들로 공간적 범위 한정
  -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항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국가<sup>14)</sup>
  - 한국처럼 소득 수준이 높고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sup>15)</sup>
  - 조사 시점에서 연구 대상인 국제관광 재건정책이 명시적으로 수립된 동시에 웹이나 서적 등의 형태로 외부 공개하며 관련 데이터도 입수 가능한 국가
  - 영국·아일랜드는 국경 개방에 적극적인 반면, 호주·뉴질랜드는 엄격한 국경 봉쇄를 실시하는 등 차별성이 있어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

## 라. 내용적 범위

- 국제관광 환경
  - 한 국가가 특정한 국제관광 재건정책을 실시하는 이면에는 외부적인 요인,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함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경제상황 제시
- 출입국 정책
  - 코로나19 조건 아래에서 국제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트래블 버블, 백신 인증서 및 신호등 체계와 같은 새로운 출입국 정책과 그에 따른 국제 관광객 변화 분석
  - 과거에는 비자 발급이 출입국 정책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기간과 같은 기술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
- 관광사업체 지원책
  - 과거에는 일부 국가나 지역으로 피해가 한정되어 다른 지역과의 국제관광으로

14) 우리나라는 반도국가(半島國家)이나 남북이 분단되고 상호간 물리적 이동이 단절된 상황으로, 사실상 도서국가(島嶼國家)와 유사하여 방문 관광객 대부분은 선박보다 항공을 이용하여 입국하고 있음

15) 국제통화기금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경제지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등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하며,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 민주적인 선거, 행정체계 등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므로 외부적 조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 위험을 일부 회피하는 일이 가능하였음(예: 한일 무역분쟁 → 베트남 관광 증가)
- 코로나19로 모든 지역과의 국제관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관광사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일시적인 위험에 처한 역량이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일은 불가피한 상황
- 다만 역량이 미흡한 사업체가 지원받거나 관광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적 인센티브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해외 사례의 검토가 필요함
- 국제관광 재건정책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추가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최신 통계·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수집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 국가의 상황 변화 파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설문 같은 형태의 공식통계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다수 관광객의 입국 수단이 항공편인 국가들로 대상을 제한하고, 관련한 최신 데이터를 입수하여 제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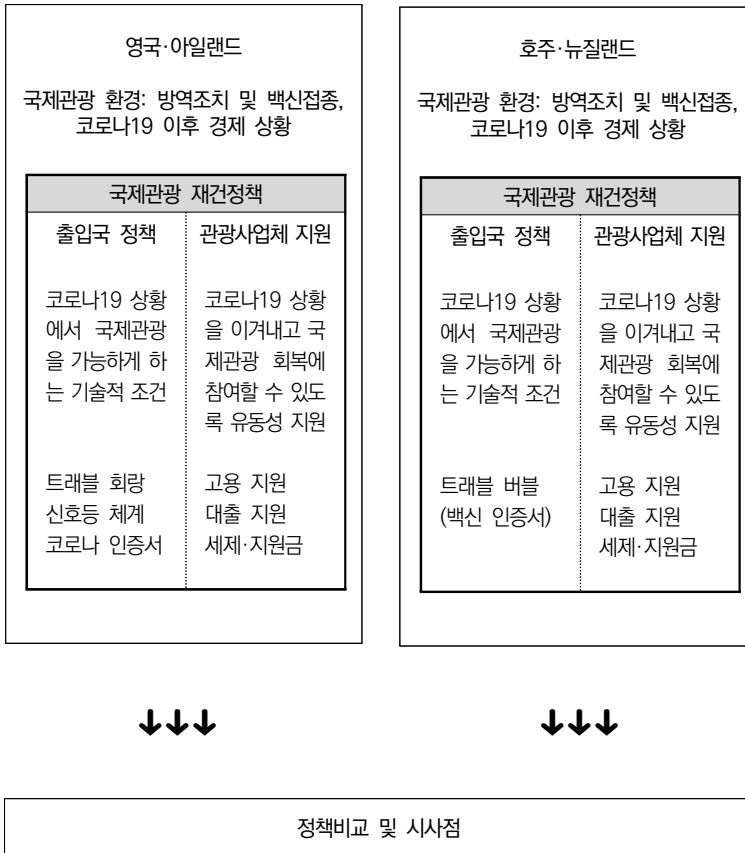
##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등을 필요한 파트별로 적용
- 코로나19 데이터 및 국제관광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분석
  -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 플랫폼 등 활용
- 국제기구(OECD, UNWTO 등)의 경제·국제관광 회복 시나리오 분석
  - 국제기구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정책 보고서, 시나리오 분석 및 보도자료 활용
- 개별 국가의 국제관광 환경(방역조치,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제상황 등) 분석
  - 개별 국가 통계기구,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정책 보고서, 신문기사 활용
- 개별 국가의 국제관광 재건정책(항공노선, 검역, 소비자신뢰 회복 등) 분석
  - 개별 국가 정부부처의 국제관광 관련 재건정책 동향 문건 및 보도자료
  - 국가별 특수 정책사례 소개 및 국제관광·여행 측면에서의 결과 분석

### 3. 연구의 논리적 구조

- 본 연구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음

[그림 1-1] 연구의 논리적 구조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제2장

국제관광 시장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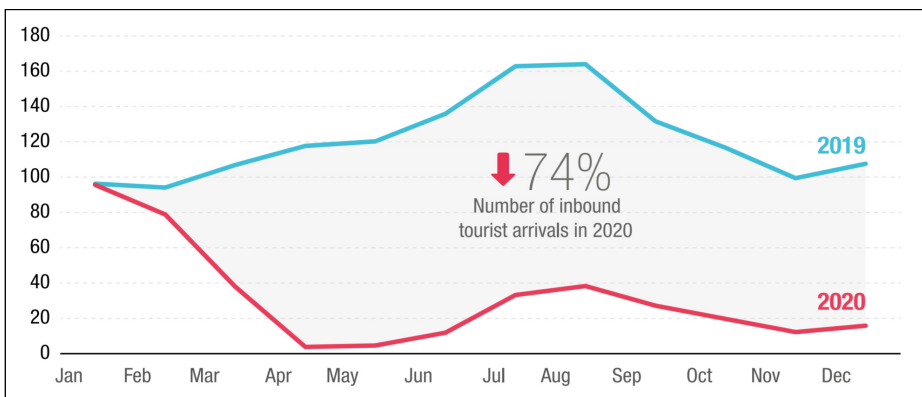


## 제1절 국제관광 시장 현황

### 가. 국제관광 피해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2020년 초반부터 국제관광에서 피해가 나타남
  - 중국과 인접한 순서로 코로나19가 발발하여, 국제관광 중단 시기는 상이하지만 2020년 3월부터는 2019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감소하며 2020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관광이 사실상 중단되었음
- 2020년의 범지구적인 국제 관광객 감소는 74%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

[그림 2-1] 2019년과 2020년의 국제 관광객



출처: UNCTAD (2021)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과거 국제관광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2-1>로 정리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에 국제관광 시장에 충격을 준 사례로 911 테러, 사스(SARS),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으나, 코로나19는 그 어느 사례와 비교하여도 피해

- 의 수준에서 궤를 달리하며 현재진행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과거 충격별(911 테러, 사스, 금융위기) 국제관광객의 회복기간은 [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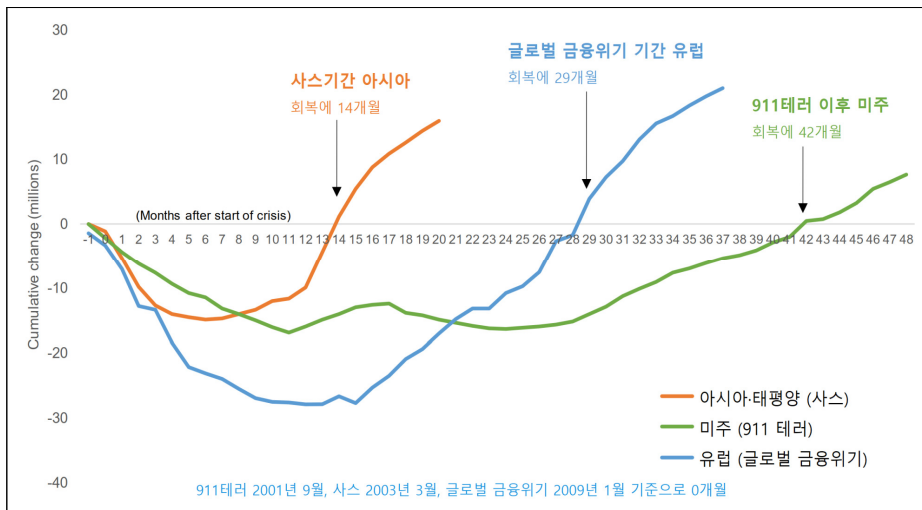
〈표 2-1〉 국제관광 충격 사례

(단위: 개월, %)

	911 테러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발생 시기	2001년 9월	2003년 3월	2009년 1월	2019년 12월
가장 영향받은 지역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전 세계
성장을 회복 기간	12개월	7개월	14개월	20개월- (진행중)
용적 회복 기간	42개월	14개월	29개월	20개월- (진행중)
지역 방문객	△5.9%	△9.4%	△5.3%	△74.0% (‘20년 기준)

자료: UNWTO (2020)

[그림 2-2] 국제관광 회복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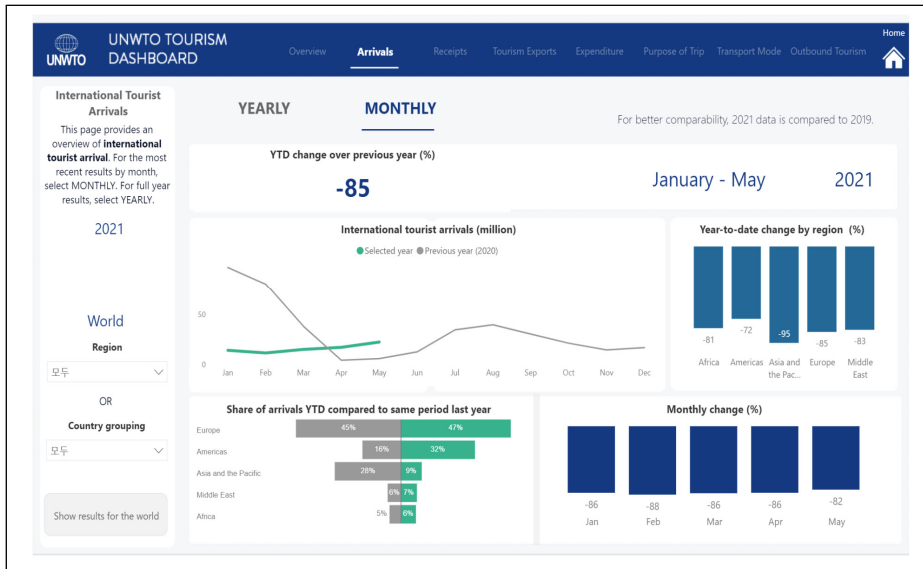


출처: UNWTO (2020)

## 나. 국제관광 현황

- UNWTO 대쉬보드에서 국제 관광객은 여전히 2019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수준이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3] UNWTO 대쉬 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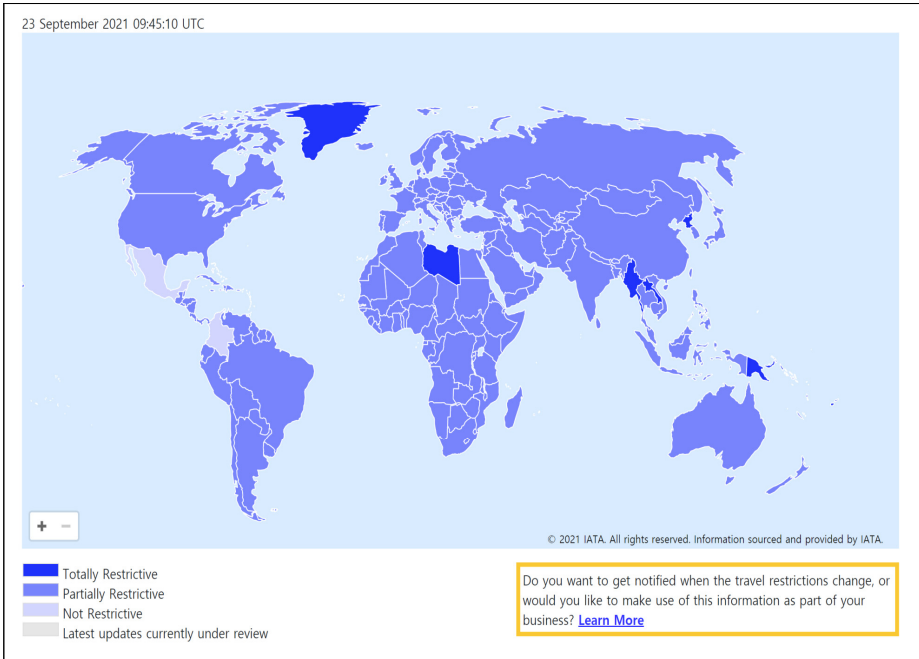


출처: UNWTO (n.d.)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여행 제한지역 지도(COVID-19 Travel Regulations Map)에 따르면(그림 2-4) 참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제여행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은 국제여행을 부분적으로 규제(partially restrictive)하고 있으며,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멕시코(Mexico)와 유럽의 불가리아(Bulgaria), 남미의 콜롬비아(Colombia)가 있음<sup>16)</sup>
  - 한편, 북한, 태국, 미주의 그린란드(Greenland), 북아프리카의 리비아(Libya) 등은 국제여행을 완전히 규제(totally restrictive)하고 있음
- 부분적으로 국제관광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국제관광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16)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규제가 없는 지역은 멕시코와 불가리아가 유일함

[그림 2-4] 여행 제한지역 지도 (9월 2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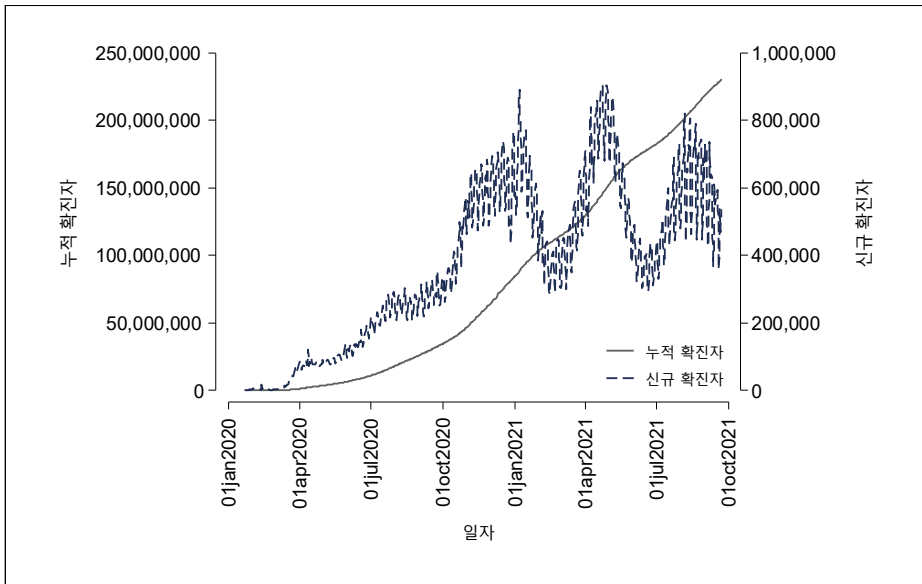


출처: IATA (n.d.)

#### 다.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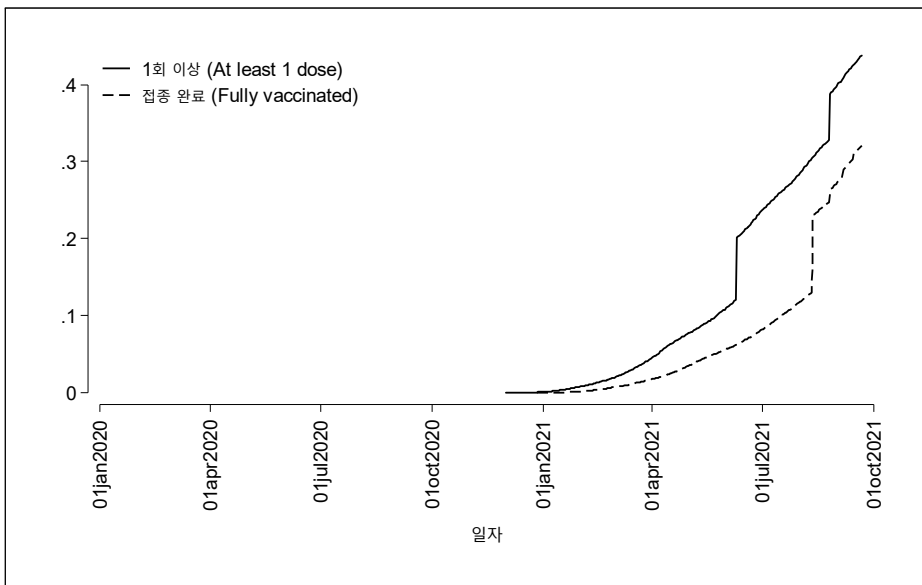
- 2021년 9월 기준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진행되어 누적 확진자는 계속 증가중
- 2021년 9월 30일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233,742,102명, 누적 사망자 4,782,950명으로 사망률(사망자/확진자)은 약 2% 수준
  - 2020년 9월 30일에는 누적 확진자 45,523,083명, 누적 사망자 1,186,596명 수준이었으며(신용석, 2020), 누적 확진자는 1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
- [그림 2-5]에서 나타나는 누적 확진자의 추이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은 현재진행형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 신규 확진자는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2020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다행히 백신 접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약 45.4%,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33.7%에 달함

[그림 2-5] 범지구적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료: Ritchie et al. (2020)

[그림 2-6] 범지구적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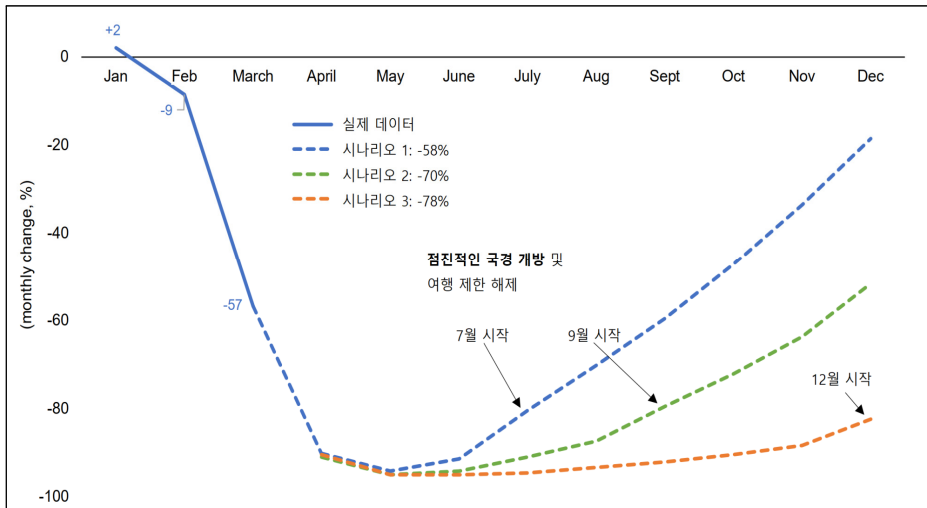
자료: Mathieu et al. (2021)

- 작년 일부 국가에서 한정하여 실시되었던 백신 접종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림 2-6]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자 비율은 약 45.4%,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33.7%에 달하고 있음
  - 1차 접종자, 접종 완료자는 각각 일평균 0.24%, 0.22% 수준으로 증가함

## 제2절 국제관광 시장 전망

- 세계관광기구(UNWTO, 2020)에서 2020년 초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나 ([그림 2-7] 참조), 실제 국제관광은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에 가까운 형태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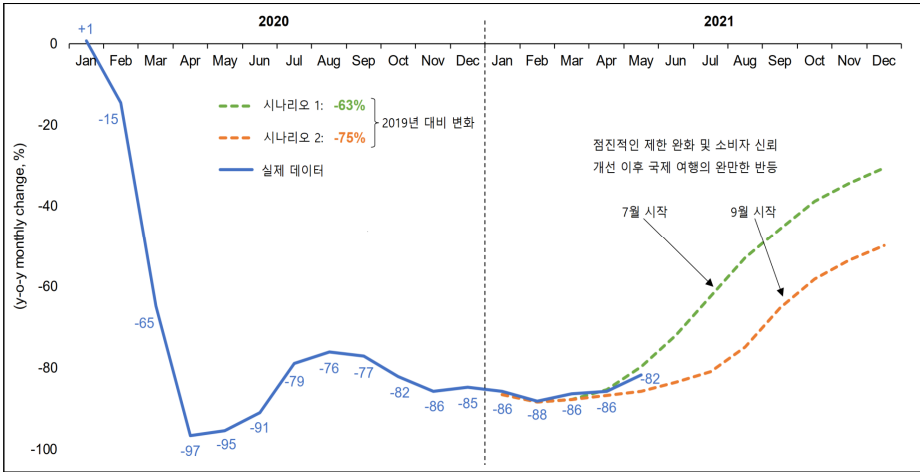
[그림 2-7] 2020년 세계관광기구 시나리오



출처: UNWTO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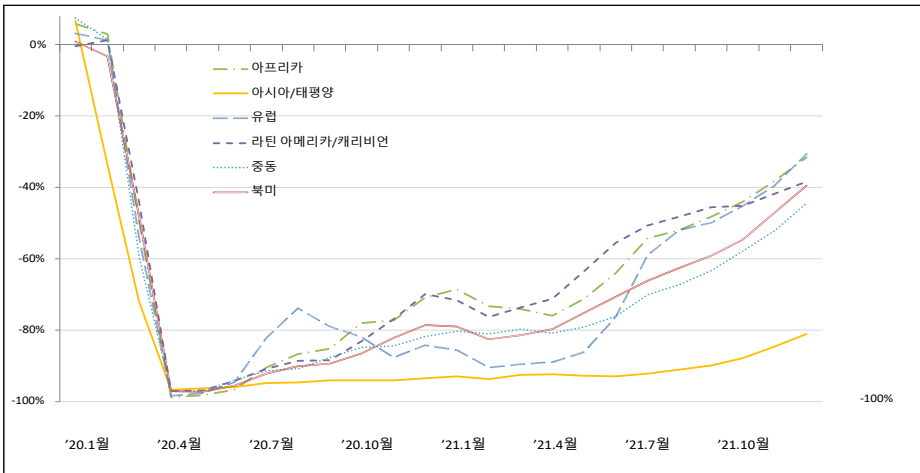
- [그림 2-8]의 세계관광기구 최신 시나리오는(UNWTO, 2021), 2021년의 전체적인 국제관광이 2019년 대비 63% 또는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의 감소와 유사한 수준
  - 그러나, 감소 규모와 별개로, 2021년 말에 가까워질수록 국제 관광객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2-8] 2021년 세계관광기구 시나리오



출처: UNWTO (2021)

[그림 2-9] 2021년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 시나리오



출처: Air Transport Bureau (2021)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부정기적으로 코로나19가 민간 항공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9월 22일 발표된 자료(Air Transport Bureau, 2021)에서는 2021년 하반기 국제선 여객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회복 수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늦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제3절 소결

---

- 국제관광 시장의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제관광 시장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국지적 충격인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911 테러의 경우에도 관광객 수의 회복에는 각각 14개월, 29개월, 42개월이 걸린 만큼(UNWTO, 2020), 글로벌 충격인 코로나19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개연성도 존재
- 다행하게 백신 접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국제관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국제관광 피해는 그 범위와 규모 모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
  - 국제관광과 관련된 사업체들은 국경봉쇄로 인해 사실상 영업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즉시적인 영업활동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이 가장 느릴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함을 시사
-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국경 개방과 함께 국제관광 사업체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실시하여야 빠른 국제관광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국제관광 재개정책이 아니라 재개정책과 지원책이 결합된 재건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귀결
- 이하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4개 국가의 국제관광 환경과 재건정책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제3장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제1절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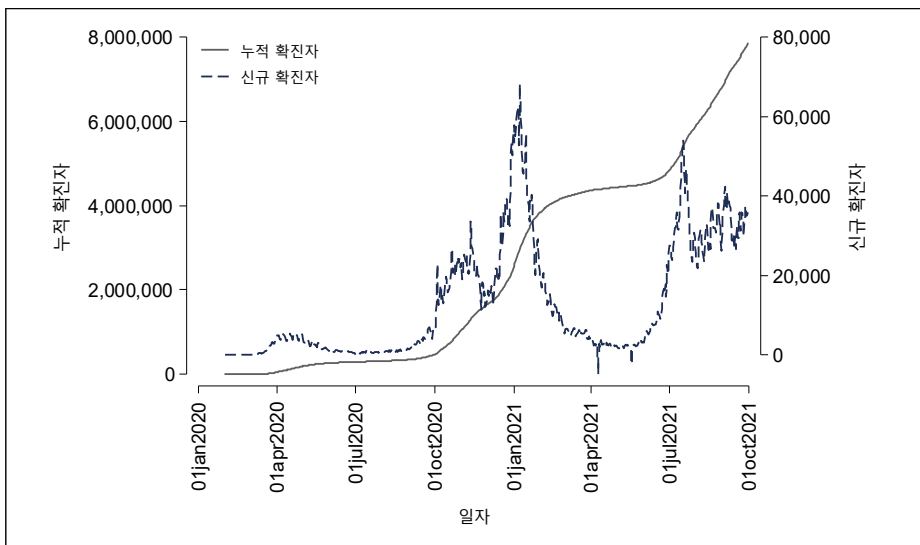
### 1.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 가.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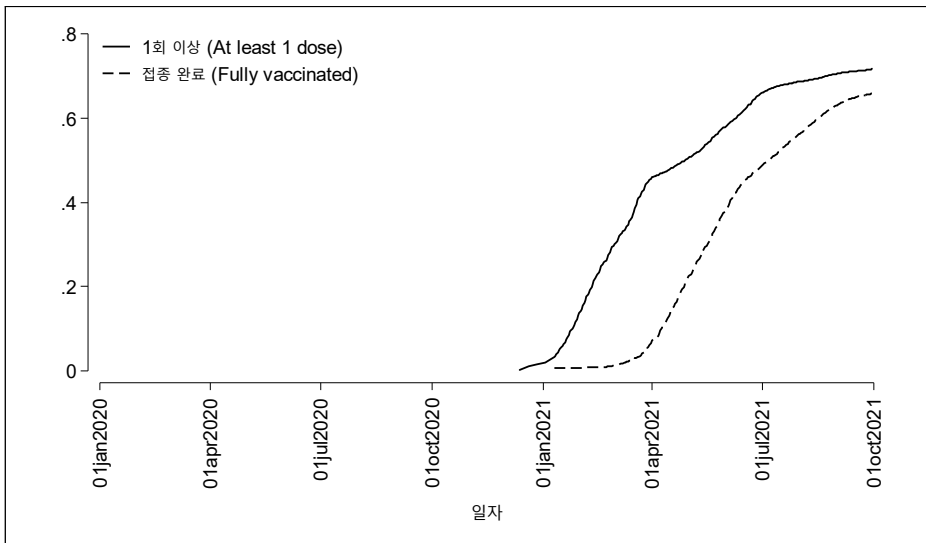
- 영국 방역조치의 특징은 수시로 락다운(lock down) 해제를 시도하였다는 점
- 영국의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는 2020년 1월 31일 발생하였으며, 2020년 3-4월의 1차 대유행 상황에서 1일 최대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여행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오락, 숙박 시설,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 폐쇄 등의 조치와 함께 검사 횟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침
  - 2020년 5월 10일,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의 락다운(lock down)을 해제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제재 완화조치(reopening)는 5월 13일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9월에는 교육시설의 재개도 이루어졌음
- 제재 완화조치 이후, 2020년 9월-11월의 2차 대유행 기에는 1일 최대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국정부는 2차 대유행의 초기에 3단계 강도인 지역 기반 제재조치로 대응하였으나, 11월 5일, 결국은 다시 전국적인 락다운을 시행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 조치 이후에도 교육시설, 건설, 제조업 영업은 유지하였음
- 이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1일 최대 6만8192명 (2021년 1월 8일)의 확진자가 기록되었음
-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4일 새로운 4단계 방역조치를 내 놓았는데, 이는 잉글랜드 지방의 3번째 락다운으로 학교, 식당, 술집,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의 폐쇄와 시민들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같은 시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도 락다운에 돌입하였으나, 이후 2021년 상반기에는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 발생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021년 3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되었음
-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사적 모임인원 제한 완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등의 여파로 6월부터 다시 확산세가 강화되어 7월 17일 한 때 54,183명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진행
- 2021년 9월 30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7,843,887명
- 영국은 비교 대상인 다른 선진국보다 이른 시기인 2021년 1월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2021년 9월 30일 현재 1차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각각 71.6%와 65.8%에 달함
- [그림 3-1]은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차이를 나타냄

[그림 3-1] 영국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자료: Ritchie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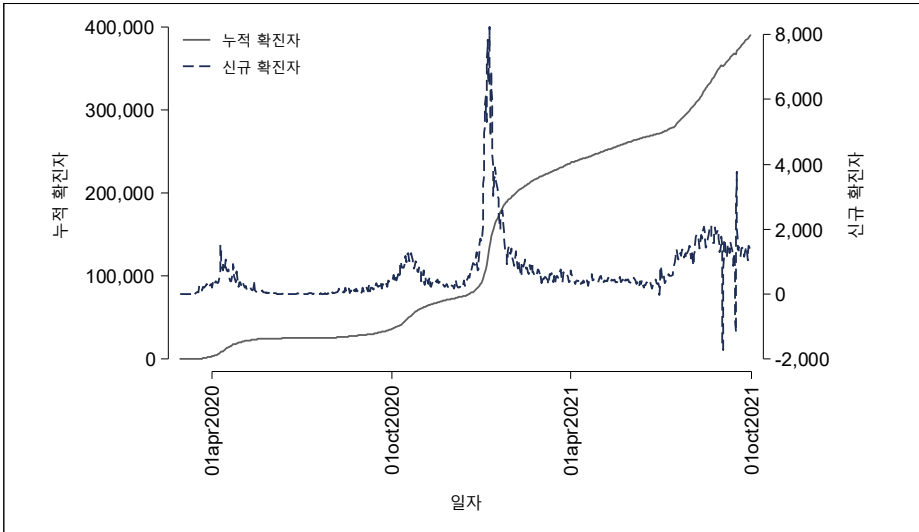
자료: Mathieu et al. (2021)

## 나.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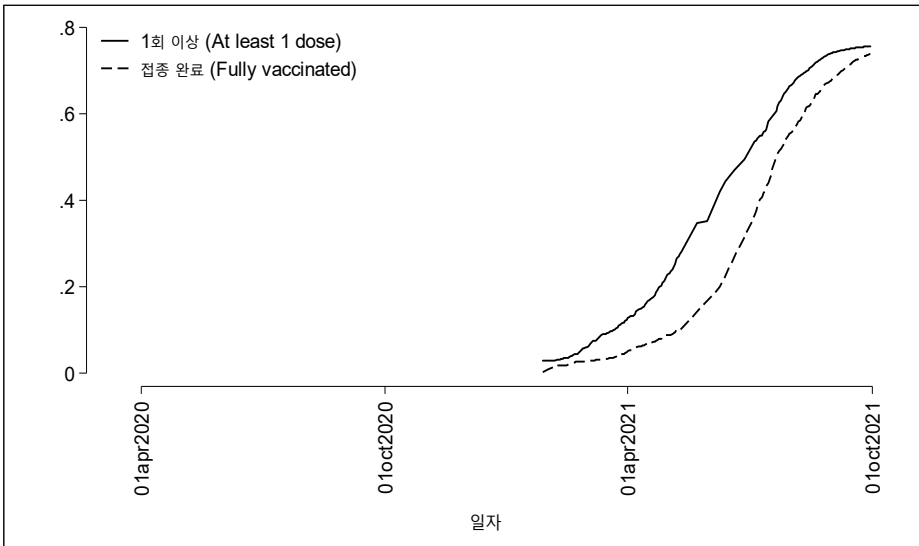
- [그림 3-2]는 아일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차이를 나타냄
-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영국에 비해 강한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나, 2021년 4월부터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치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위드 코로나’ 선언 상태<sup>17)</sup>
- 아일랜드의 첫 확진자는 2020년 2월 29일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3월과 4월 1차 대유행과 9월과 10월의 2차 대유행을 경험
  - 1차와 2차 대유행 시에는 영국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락다운과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치(reopening)를 반복
  - 그러나 10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기에는 휴일 효과와 영국으로부터의 감염 확대 등으로 2021년 1월 8일 하루 확진자가 8,227명 수준에 도달,
  - 그 결과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성공적인 코로나 관리 국가 중 하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국가군으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였음

17) ‘위드 코로나’는 한국 언론에서 애용하는 표현으로,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위드 코로나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living with coronavirus’를 들 수 있음

[그림 3-2] 아일랜드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자료: Ritchie et al. (2020)



자료: Mathieu et al. (2021)

- 아일랜드 정부는 가장 강도가 높은 세 번째 락다운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학교의 폐쇄, 대부분의 건설 현장의 폐쇄 등을 포함
  - 4월부터 다시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치에 들어갔으며, 2021년 9월 현재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9월 30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89,9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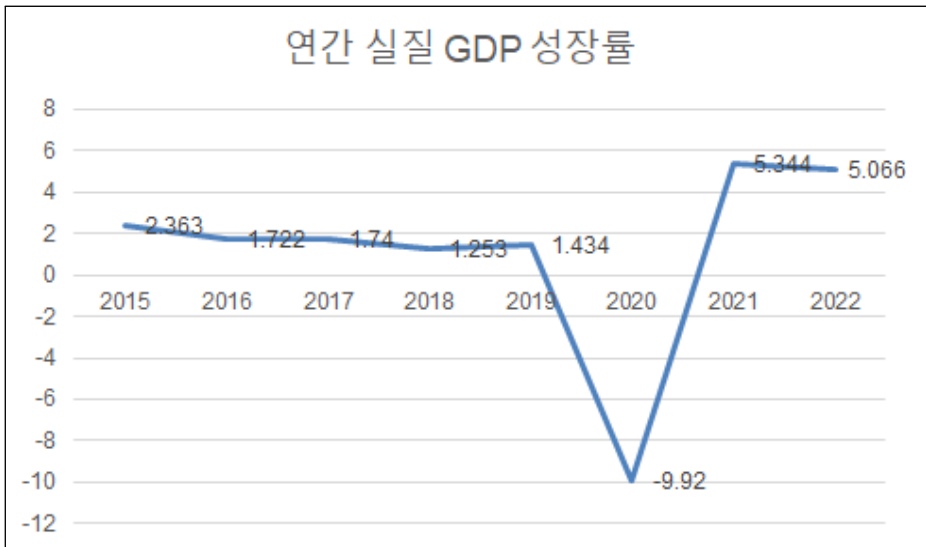
- 아일랜드는 2021년 1월말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30일 현재 1차 접종 비율은 75.7%, 접종 완료 비율은 73.9%를 기록하고 있음

## 2. 경제상황

### 가. 영국

- 영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락다운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락다운 해제를 시도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 역시 2020 12월 8일 전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한 바 있음
- [그림 3-3]는 영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3]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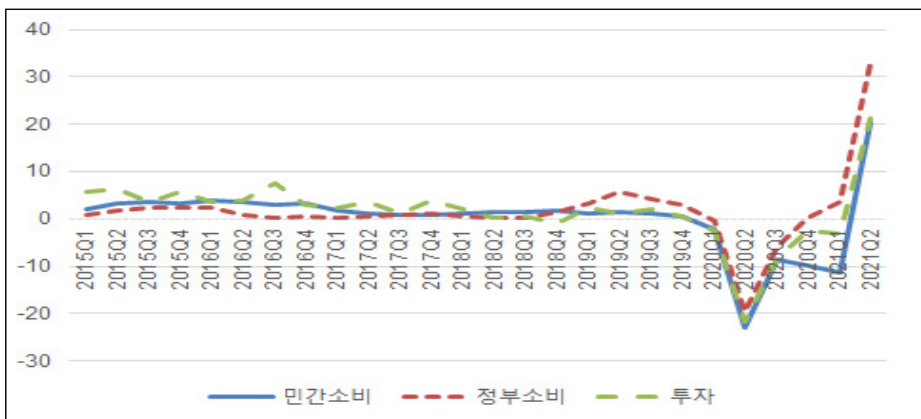


자료 및 주석: 분기별 성장률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의 실질 GDP를 바탕으로 저자계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 코로나19 이전 1%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영국 경제는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2분기에는 -23%에 달하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전체로는 -9.8% 성장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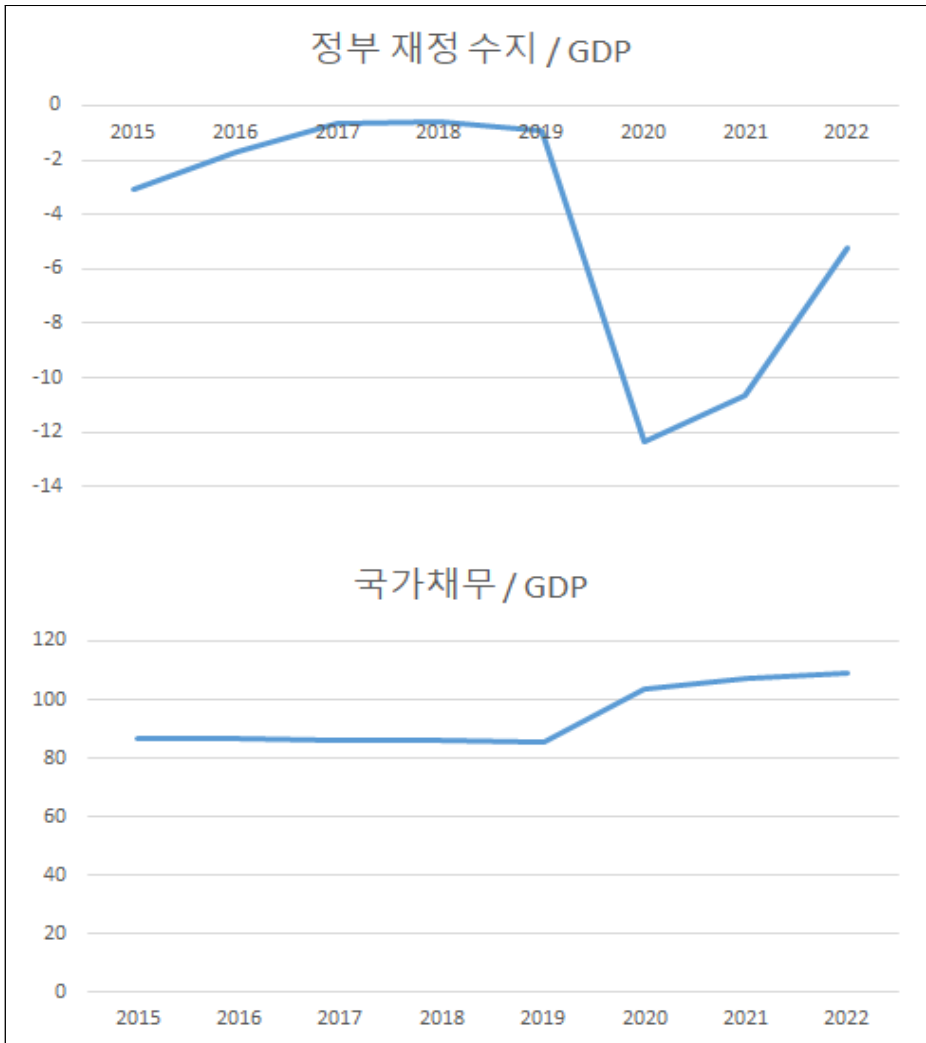
-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2021년 백신 접종률 상승과 락다운 해제,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 6%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보다 낮은 성장을 할 위험이 높음
- 2020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 성장률인 -1.1%과 비교하면, 경제적인 유인이 영국이 락다운 해제에 보여주는 적극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추측
- [그림 3-4]은 영국의 GDP 부문별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락다운의 여파로 민간 소비와 민간 지출이 2020년 2분기 각각 -23%, -21% 감소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
  - 2020년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불황 국면이 시작되면서 수출은 2020년 3분기 최대 20.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20년 2분기 28.1% 하락
- [그림 3-5]은 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GDP 대비 12.3%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6%와 5.3% 수준의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5.2% 수준이었던 영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20년 이미 103.7%까지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0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림 3-4] 영국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림 3-5] 영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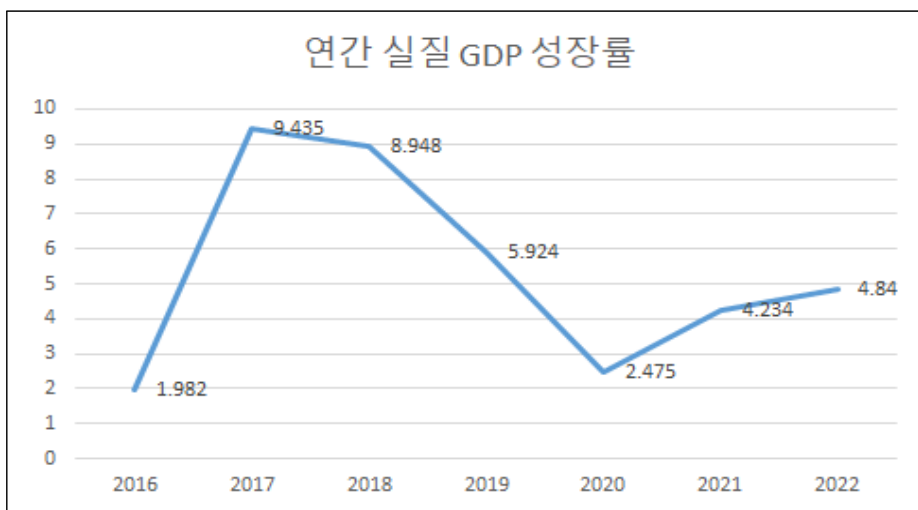


자료 및 주석: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 나. 아일랜드

- 코로나 사태 이전, 활발한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2017년 9.4%, 2018년 8.9%, 2019년 5.9%의 고성장을 이어오던 아일랜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로 2020년에는 2.5%까지 성장률이 낮아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 성적
  - 따라서 국제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유인이 적으며, 유럽 연합 소속국으로 자유로운 출입국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이유로 보임
- 국제통화기금은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된다는 가정 하에 아일랜드 경제가 2021년 4.2%, 2022년 4.8%로 경제가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그림 3-6]은 아일랜드의 분기별,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6] 아일랜드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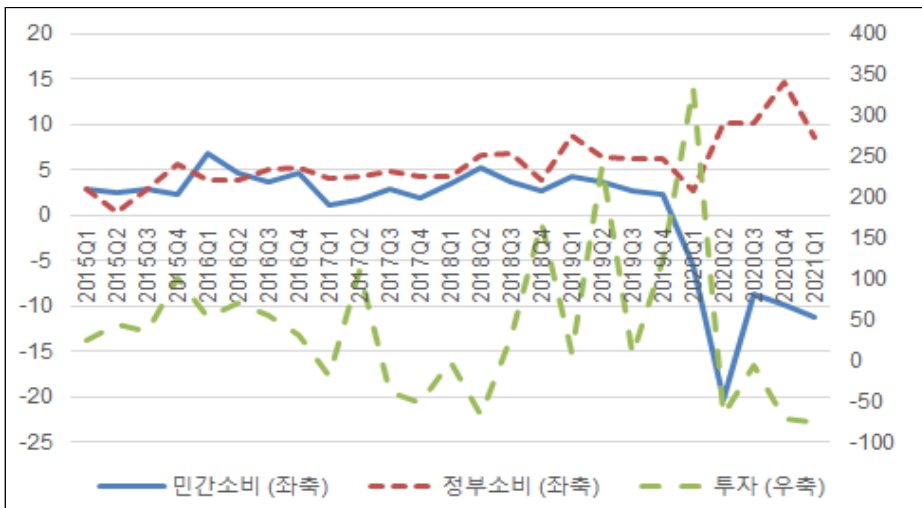
자료 및 주석: 분기별 성장률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의 실질 GDP를 바탕으로 저자계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 아일랜드 GDP의 지출측면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림 3-7]을 보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소비의 증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
- 2020년 2분기 민간소비는 -20%, 투자는 -66% 감소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폭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투자는 2021년 1분기에도 -7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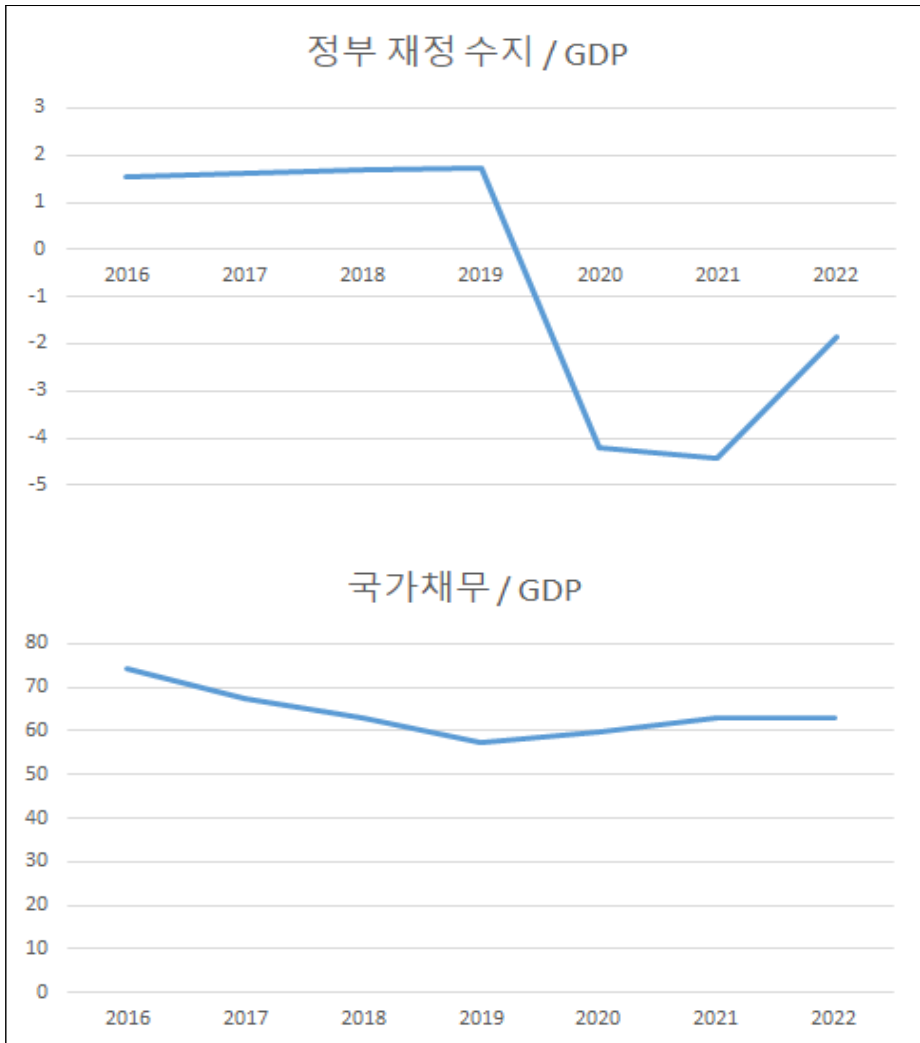
- 아일랜드의 수출은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된 반면, 내수 구매력의 하락으로 수입은 크게 줄어 2020년 2분기 -34%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음
- [그림 3-8]은 아일랜드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일랜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4.2%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4%와 -1.8%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2019년 57.3%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20년 59.8%로 상승한데 이어, 2022년까지 63.2%까지 상승할 전망

[그림 3-7] 아일랜드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그림 3-8] 아일랜드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자료 및 주석: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 제2절 영국·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1. 영국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가. 출입국 정책

- 영국 출입국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단방향 정책을 실시함
- 영국의 출입국 정책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전면 봉쇄에 가까웠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트래블 버블, 신호등 체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국제관광 재개를 시도
  - 英國 트래블 버블의 공식 명칭은 트래블 회랑(Travel Corridors)으로, 면제 국가나 지역(exempt countries and territories)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self-isolate)를 면제하였음
  -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는 각 국가를 녹색(green), 황색(amber), 적색(red) 국가군으로 삼등분하고, 각각 별도의 출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시스템<sup>18)</sup>
  - 우리나라는 트래블 회랑에서는 면제 국가에 해당하였으며, 신호등 체계에서는 황색 국가군에 해당하였음
  - 그러나 2021년 10월 4일부터 신호등 체계도 폐지되고, 국가 분류를 적색 국가군(red list)과 그 외 국가(rest of world)로 단순화하는 새로운 출입국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인바운드 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도 최근의 출입국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영국 관광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장 최신 자

18) 'amber'는 호박색(琥珀色), 등색(橙色) 등으로 번역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황색으로 지칭

료는 2021년 1분기 자료([www.visitbritain.org/2021-q1-inbound-data](http://www.visitbritain.org/2021-q1-inbound-data))

- 과거에는 유로스타 및 유로터널(Eurostar and Eurotunnel)과 항구에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

#### 트래블 회랑시 자가 격리 면제 국가·지역 ('20.7.1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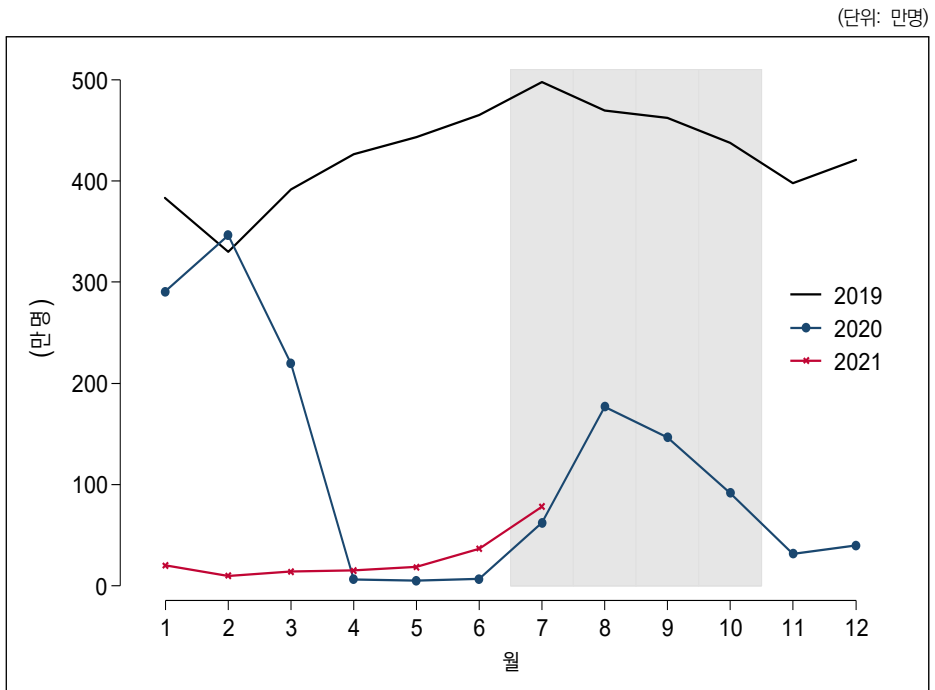
(알파벳 기준) Andorr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Austria, The Bahamas, Barbados, Belgium, Bonaire, St Eustatius and Saba, Croatia, Curaçao,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 Faroe Islands, Fiji, Finland, France, French Polynesia, Germany, Greece, Greenland, Grenada, Guadeloupe, Hong Kong, Hungary, Iceland, Italy, Jamaica, Japan,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ao (Macau), Malta, Mauritius, Monaco, the Netherlands, New Caledonia, New Zealand, Norway, Poland, Reunion, San Marino, Serbia, Seychelles, South Korea, Spain, St Barthélemy,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Pierre and Miquelon, Switzerland, Taiwan, Trinidad and Tobago, Turkey, Vatican City State, Vietnam

- 따라서 출입국 정책에 따른 국제관광객의 변화 관측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계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표한 일일 항공여객도착(air passenger arrivals) 자료를 재구성하여 산출한 비영국 국적자의 항공여객도착을 인바운드 관광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
  - 2019년 비영국 국적자 항공 여객은 약 5,797만명, 방영 관광객은 4,086만명이며, 2020년 비영국 국적자 여객은 1,437만명, 관광객은 1,110만명 수준으로 항공여객 대비 관광객은 약 70-77% 수준(Newell, 2021; Osborn, 2021)
- [그림 3-9]을 주요 출입국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3월 23일에는 영국의 첫 번째 락다운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국제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남
- 2020년 7월 10일자로 트래블 회랑이 실시되어 2020년 7-8월에는 상당한 수준의 국제관광객 회복이 나타났으나,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회복 효과가 크게 감소함
  - 2020년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7월) 19,577명 → (8월) 33,290명 → (9월) 117,765명 → (10월) 558,947명으로 크게 증가



- 2020년 11월 5일 두 번째 락다운이 시작되어 국제관광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가며, 2021년 1월 5일에는 세 번째 락다운이 선포됨
- 2021년 1월 18일에는 트래블 회랑의 중단이 공식화되었으며, 영국, 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 섬 이외의 모든 여행객에게 영국에 도착한 이후 10일의 자가격리(self-isolate for 10 days after arriving in the UK) 의무 부여

[그림 3-9] 영국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자료: 영국 내무부(Newell, 2021)

- 2021년 5월 17일에는 신호등 체계가 도입되어 6-7월 모두 전년도보다 국제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트래블 회랑이 실시되었던 2020년 7월보다 2021년 7월의 국제관광객이 많다는 사실도 특기할만함
  - 2021년 7월 8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객에 한하여, 황색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자가 격리를 면제함
- 2021년 10월 4일부터 신호등 체계도 폐지되고, 국가 분류를 적색 국가군(red list)과 그 외 국가(rest of world)로 단순화하는 새로운 출입국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나. 관광사업체 지원

- 영국은 관광 사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게 고용, 대출, 세제 지원 및 정부 보조로 요약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할인 캠페인과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 실시
- 고용 지원(Employment support schemes)
  - 정부의 지원책 중 가장 큰 재정 규모가 투입된 프로그램으로, 정부 임금 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코로나 직업 유지 프로그램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과, 이와 유사한 규모로 관광업계의 자영업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자영업 임금 지원 프로그램 (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 SEIS)로 구성
- 세제 지원 및 지원금
  - 잉글랜드 지역의 소매업, 숙박업, 보육원, 레저 등은 2020/21 회계연도에 영업세(business tax)를 면제받고, 동종의 소규모 사업은 25,000 파운드 지원금을 받으며, 소기업은 10,000 파운드의 현금 지원금을 받음
- 사업 지원 프로그램
  - 사업 회복 지원 대출 프로그램 (Bounce Back Loans Scheme; BBLS)은 모든 사업자에게 50,000 파운드나 총매출액의 25%의 대출을 해 주며,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증
  - 코로나 바이러스 영업 중단 대출 지원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BILS)은 총매출이 4천5백만 파운드 이하의 사업에 대해 최대 5백만 파운드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대출금의 80%를 정부 보증
  - 코로나 바이러스 대기업 대출 지원 (Coronavirus Larger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CLBILS)은 상기한 'CBILS'의 연장선상에서 총매출이 4천5백만 파운드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
  - 미래 기금 (Future Fund)은 주식에 대한 투자나 수익이나 이윤이 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영국 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미래 기금은 최대 5백만 파운드까지의 대출을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은 민간 투자자와 최소한 동일한 규모로 진행

###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혁신에 대한 영국의 관점

-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
-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방문자 경험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온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관광 산업이 필요함
- 더 나은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내의 공공·민간 참여자 모두의 더 나은 타게팅과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의미
- 영국의 많은 관광 명소들이 락다운 기간 집에서 머무르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였음
-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되면, 억눌렸던 물리적 경험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지만, 관광 사업체들은 운영모델의 지속적인 다양화로부터 편익을 누릴 수 있음
- 관광 분야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면, 관광 인력이 디지털 마케팅을 포괄하는 동시에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청중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부여받아야 함

#### ■ 세금 유예

- 영국정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음
- 또한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상호 동의된 기간 동안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HMRC Time to Pay' 서비스를 확대<sup>19)</sup>

#### ■ 그 외의 관광업 지원

-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접객업, 숙박업, 관광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로 경감시키는 조치 시행
- “먹어서 돕자(Eat Out to Help Out scheme)” 프로그램은 2020년 8월 중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식사에 대해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식당 및 카페를 대상으로 1인당 10파운드까지 50% 할인 제공
- 관광 촉진 패키지 (Kick-starting Tourism Package)은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광지에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적응을 돕기 위해 5,000 파운드의 지원자금을 제공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폐쇄 위기에 있는 지역관광 추진조직(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DMOs)에 13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 제공

19) 'HMRC'는 영국 국세청(정확하게는 국관세청)의 약칭으로 정식 명칭은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 2. 아일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가. 출입국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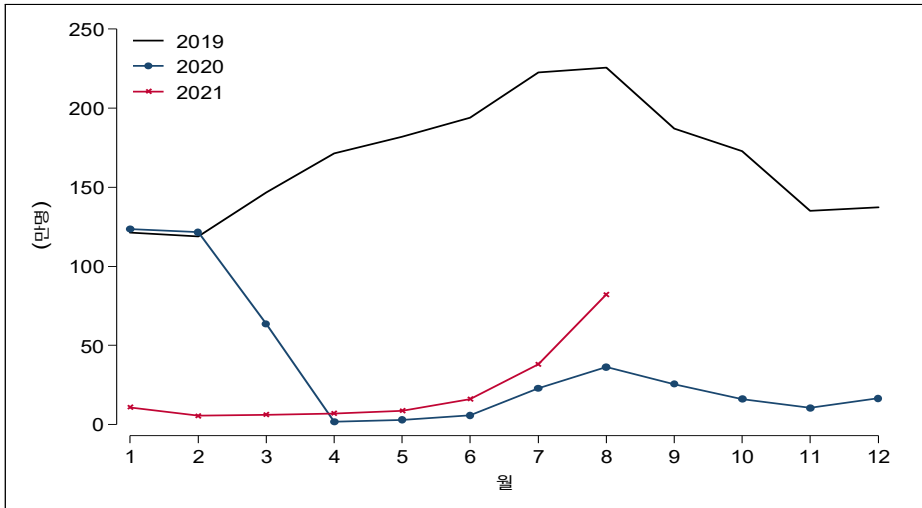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출입국 정책이 유럽연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양호하여 영국처럼 적극적으로 국내의 락다운을 해제하려는 움직임도 없었음
-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유행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소위 브렉시트(Brexit)가 발생
- 그러나 아일랜드는 여전히 유럽연합의 일원이며, 따라서 출입국 정책도 유럽연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아일랜드 정부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공식 정부 홈페이지 하에 국제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음<sup>20)</sup>
- 아일랜드 인바운드 추이는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n.d.)에서 공개하는 국제 여행(overseas travel) 통계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sup>21)</sup>

20) 인터넷 주소: <https://www.gov.ie/en/campaigns/75d92-covid-19-travel-advice/>

21) 현재 입수한 아일랜드의 최신 통계에는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한 국제 관광의 비중은 낮은 편임

[그림 3-10] 아일랜드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단위: 만명)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n.d.)

- [그림 3-10]을 아일랜드의 주요 출입국 정책 변화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중반까지 아일랜드 정부는 국경 봉쇄를 실시하지 않았으나(McGrath, 2020), 동년 4월에는 국제 관광이 중단 되면서 전년 대비 1% 수준인 약 1.8만명까지 감소함
- 2020년 6월 아일랜드는 자체적으로 격리가 면제되는 15개 국가의 ‘여행 그린 리스트(Travel Green List)’를 발표하였으나(ICEF Monitor, 2020),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든 국가가 그린 리스트에서 삭제됨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2020; Dublin Airport, 2020a)
- 2020년 7월 유럽 연합이 역외 일부 국가에 대해 국경 개방을 실시하면서(신용석, 2020), 국제 관광객 증가가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다시 봉쇄로 전환
  - 2020년 10월 13일자로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유럽연합 신호등 체계(EU traffic system) 실시가 합의되었으며 아일랜드도 이를 준용(Dublin Airport, 2020b)<sup>22)</sup>

22) 유럽연합 신호등 체계는 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14일 개정된 기준으로는 다섯 가지 기준

- 그러나 아일랜드가 신호등 체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국가군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신호등 체계가 아일랜드 인바운드 관광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였다고 보임

####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에게 발급(European Commission, 202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또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

또한 종이형태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이고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통용됨

[그림]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 예시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

- 2021년 7월 19일자로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Digital COVID Certificate; DCC) 제도를 시행하면서, 7월과 8월에는 국제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2021년 8월 인바운드 관광객은 약 78만명으로 '19년 대비 35.6%까지 회복
  - 유럽연합의 전자 코로나19 인증서가 없더라도 다음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아일랜드 여행 가능: (1)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valid proof of vaccination), (2) 과거 180일 이내에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유효한 증명(valid proof of recovery from COVID-19), (3) 아일랜드 도착후 72시간내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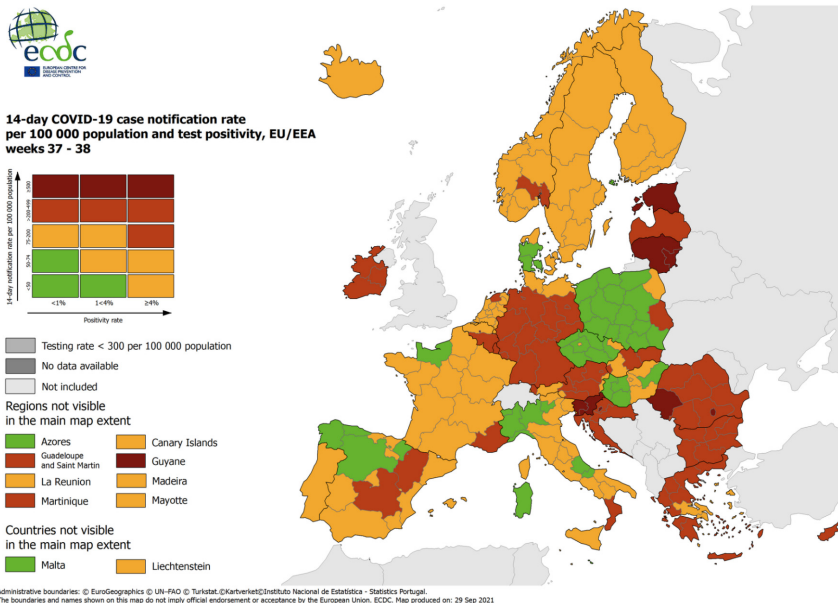
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있음

된 RT-PCR 검사의 음성 증명(proof of negative RT-PCR test taken within 72 hours of arrival)

## 유럽연합 신호등 체계

- 녹색(Green): 14일 코로나 확진율(14-day notification rate of newly reported COVID-19 cases per 100,000 population)이 50 미만이고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4% 미만이거나, 14일 코로나 확진율이 75 미만이고 검사 양성률이 1% 미만인 경우
- 귤색(Orange): 14일 코로나 확진율이 50 미만이고 검사 양성률이 4% 이상이거나, 14일 코로나 확진율이 50~75 미만이고 검사 양성률이 1% 이상, 또는 14일 코로나 확진율이 75~200 사이이며 검사 양성률은 4% 미만
- 적색(Red): 14일 누적 코로나 확진율(14-day cumulative COVID-19 case notification rate)이 75~200이고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4% 이상, 또는 14일 코로나 확진율이 200~500 사이
- 암적색(Dark Red): 14일 코로나 확진율이 500 이상
- 회색(Grey): 정보가 부족하거나 검사 비율이 인구 100,000명당 300건 이하

[그림] 유럽연합 신호등 체계 (2021년 9월 30일 기준)



출처: 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ECDC, n.d.)

## 나. 관광사업체 지원

- 아일랜드는 대출이나 세제지원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많음

- 코로나 제재 지원 프로그램 (COVID Restrictions Support Scheme; CRSS)
  - 2021년 6월 29일 실내 접객업종 운영 금지, 제한에 대해 해당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말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에 지원한 접객업종 사업에 대해 1주일에 10,000 유로씩, 최대 3주 동안 30,000 유로 지급
- 고용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 (Employment Wage Subsidy Scheme; EWSS)
  - 고용 급여 보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직원 급여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 경제 재건 계획(Economic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
- 팬데믹 실업 수당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PUP)
  - 팬데믹 실업 수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은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복지 지출임
  - 수혜자는 코로나 발생 이전 주급을 기준으로 <표 3-1>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021년 7월 8일 이후 신규 지원은 받지 않으며, 2021년 9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액수를 줄여가고 있음

〈표 3-1〉 아일랜드 팬데믹 실업 수당

평균 주당 임금	주당 지원 내역
€400 이상	€350
€300 - €399.99	€300
€200 - €299.99	€250
€200 이하	€203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지원 (Enhanced illness Benefit)
  - 코로나로 진단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계획



- 영업 재개 지원 프로그램(Business Resumption Support Scheme)
  -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아서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새롭게 제안된 프로그램
  -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취약하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매출이 75%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Assistance Scheme for COVID; SBASC)
  - 이는 코로나 제재 지원 프로그램(CRSS), 관광업 지속 프로그램(Tourism Business Continuity Scheme)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고정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함
  - 최소 총매출액이 50,000 유로인 사업체는 4,000 유로 기금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됨
  - 또한 총매출액이 20,000 유로- 49,999 유로 사이인 기업은 1,000 유로의 기금을 받을 수 있음
- 세제 지원
  - 부가가치세(VAT)를 9%로 낮추고,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의 조치 시행
- 기업 지원 기금 (Enterprise Support Grant)
  - 영업을 재개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재개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000 유로의 특별 기업 지원 기금을 지급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제4장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제1절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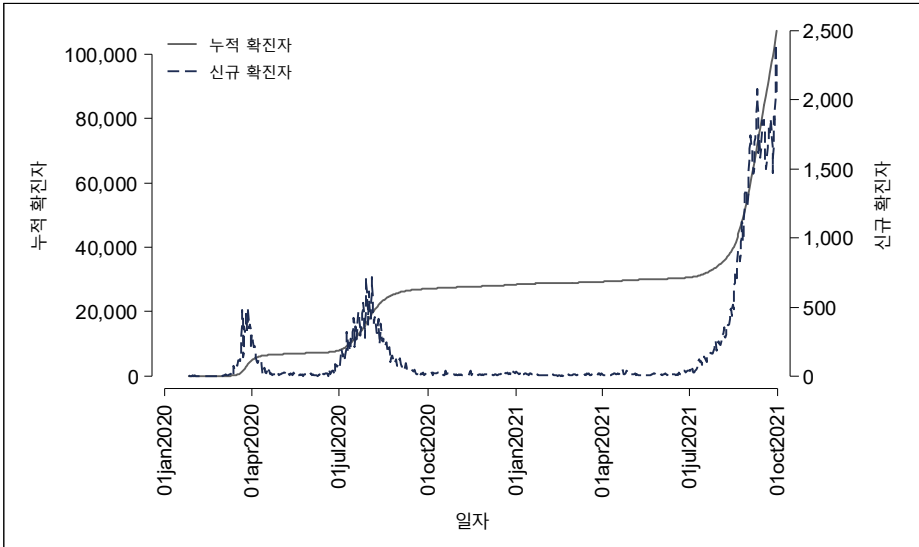
### 1.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 가.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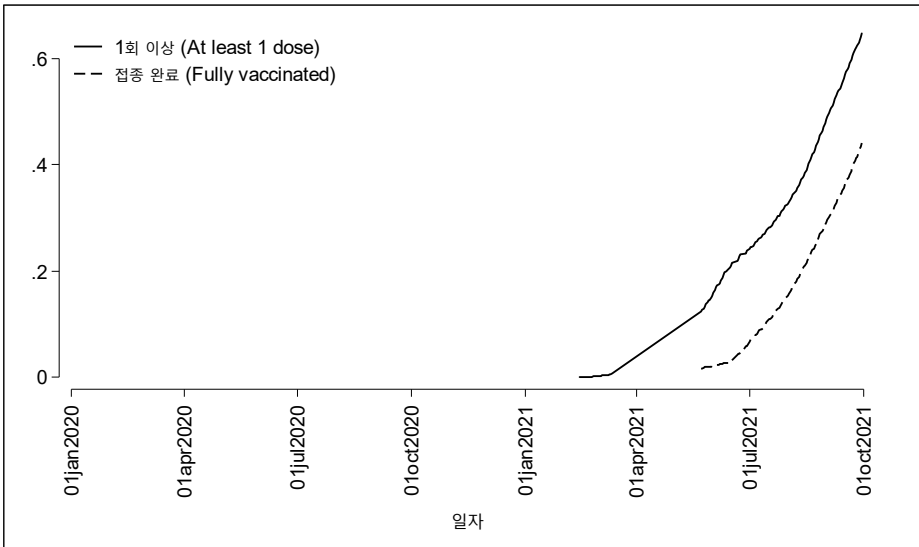
- 호주 방역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입국조차 불허할 정도로 정부가 출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특징이 있음
- 호주는 2020년 1월 25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적인 락다운(lockdown)이 시작되었음
- 2020년 3월말과 4월초까지는 두 명을 초과하는 인원의 회합 금지 조치,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의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점차 강화되었음
- 2020년 5월부터 점차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한조치가 완화되었으나, 6월부터 11월까지 멜버른 일대의 락다운이 재개되고, 빅토리아주의 영업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그 이후로 각 지역별 락다운과 해제가 지속적으로 반복
- 호주는 2021년 7월 현재, 주단위의 공공 회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
  - 해외 여행은 금지되어 있고, 뉴질랜드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시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로부터의 입국자는 2020년 10월 16일 이후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2021년 4월 19일 이후 상호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체결하고 있음
- 그러나 2021년 9월 13일 호주 내무부에서 기존의 입국 서류들을 대체하는 디지털 여객 신고서(Digital Passenger Declaration)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여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Andrews, 2021)

- 동 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상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포함

[그림 4-1] 호주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자료: Ritchie et al. (2020)



자료: Mathieu et al. (2021)

- [그림 4-1]은 호주의 코로나 누적·신규 확진자 수 및 백신 접종률을 나타냄
  - 2021년 9월 현재 호주는 명확한 2020년 3월-4월, 2020년 6월-9월,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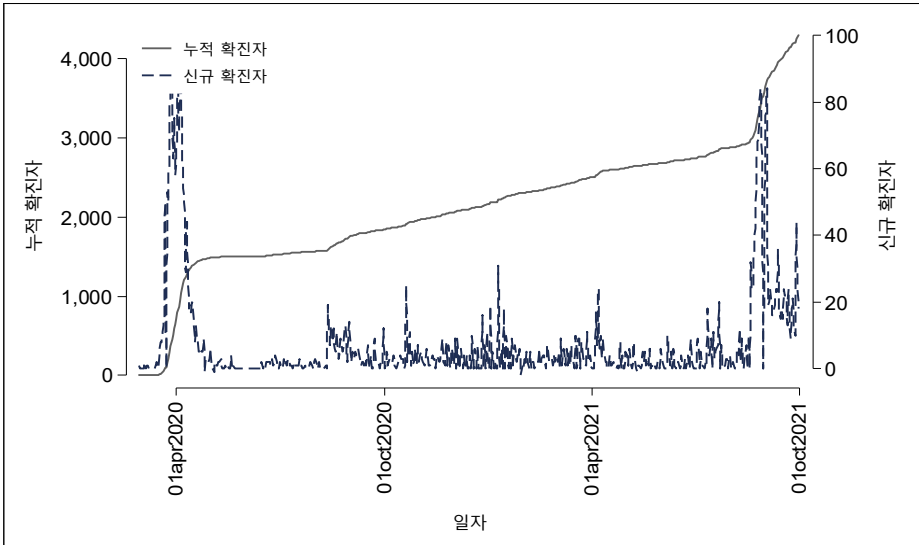
7월부터의 3차례의 대유행을 지나고 있고, 뉴질랜드는 2020년 3월-4월의 1차 대유행 이후 큰 변화 없이 관리하고 있다가 2021년 8월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9월 30일 현재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107,181명
- 2021년 9월 30일 현재 호주의 1차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의 비율은 각각 64.8%, 44.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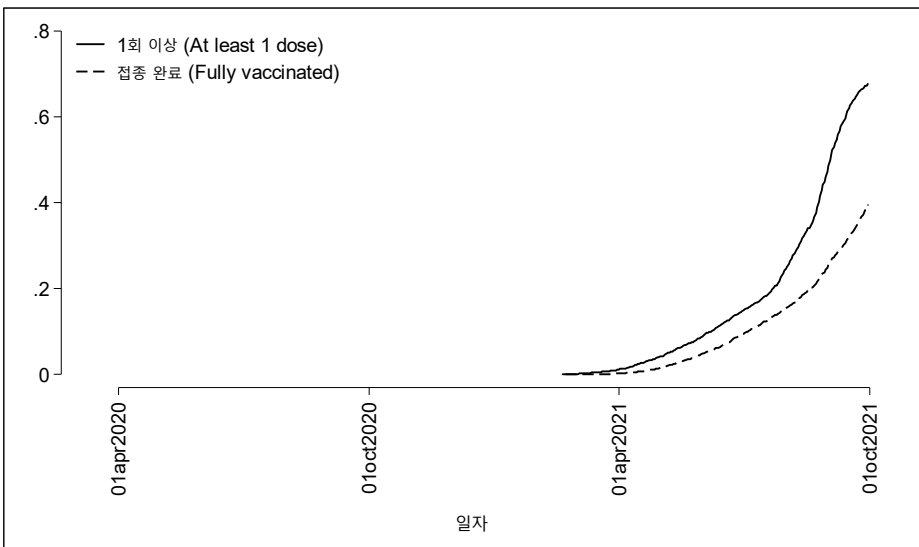
#### 나. 뉴질랜드

- [그림 4-2]는 뉴질랜드의 코로나 확진자 수 및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음
- 뉴질랜드 역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출입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실시
-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020년 2월 28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 뉴질랜드 당국은 국내 감염이 확인된 3월 25일 4단계 방역조치로 강화하면서,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영업의 금지, 모든 행사와 회합의 취소, 그리고 학교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
- 2020년 3월 19일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4월 10일부터는 내국인은 입국시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을 의무화
- 이후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 수준을 3단계 (2020년 4월 28일), 2단계 (2020년 5월 13일), 1단계 (2020년 6월 8일)로 완화하여 사적 이동, 회합, 직장 출근, 서비스업 등에 대한 제재를 철회
- 그 뒤 호주출신 관광객 확진으로 인해 오클랜드(2020년 8월과 9월, 2021년 2월과 3월)와 웰링턴(2021년 6월 23일)에 지역적으로 방역 2단계 조치가 취해짐

[그림 4-2]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 접종 현황



자료: Ritchie et al. (2020)



자료: Mathieu et al. (2021)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7월 현재 국경 폐쇄와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 호주(2021년 4월 19일)와 쿡아일랜드(Cook Island, 2021년 3월 17일)과의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였으나, 호주 관광객의 확산에 따라 2021년 6월 26일 트래블 버블이 일시 중단된 뒤 2021년 7월 5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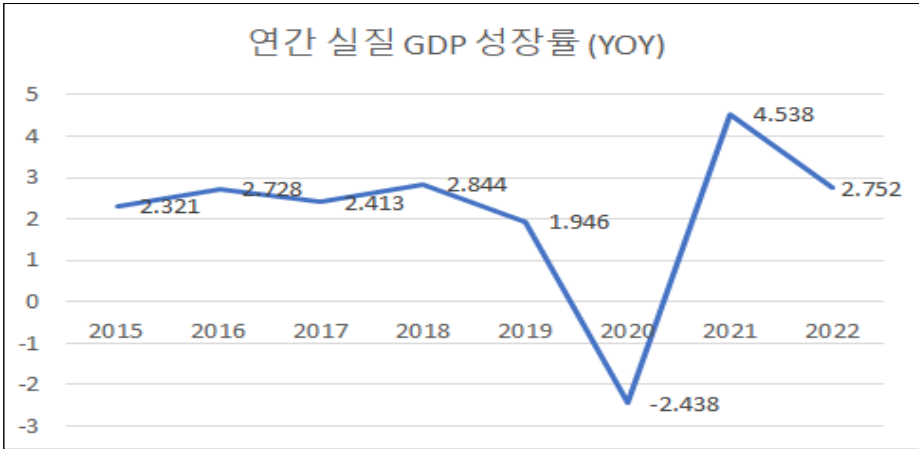
- 뉴질랜드 역시 올해 11월 말경에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접종 인증서(digital vaccination certificates)를 도입할 계획(Ministry of Health, 2021)
- 뉴질랜드의 1차 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각각 67.8%, 39.6% 수준

## 2. 경제 상황

### 가. 호주의 경제상황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 꾸준히 2%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오던 호주 경제는 2020년에는 -2.9%의 역성장을 기록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 제재 조치가 시작되던 2020년 1분기 1.4%로 떨어지기 시작해, 2분기에는 -6.2%의 큰 폭의 성장을 하락을 경험
- [그림 4-3]는 호주의 분기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지출 측면에서는 대부분 민간소비의 둔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그림 4-4]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감소가 다른 부문의 감소 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COVID-19의 영향이 극대화 되던 2020년 2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2%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4.7% 하락한 투자보다 3배 가량 큰 감소임
- 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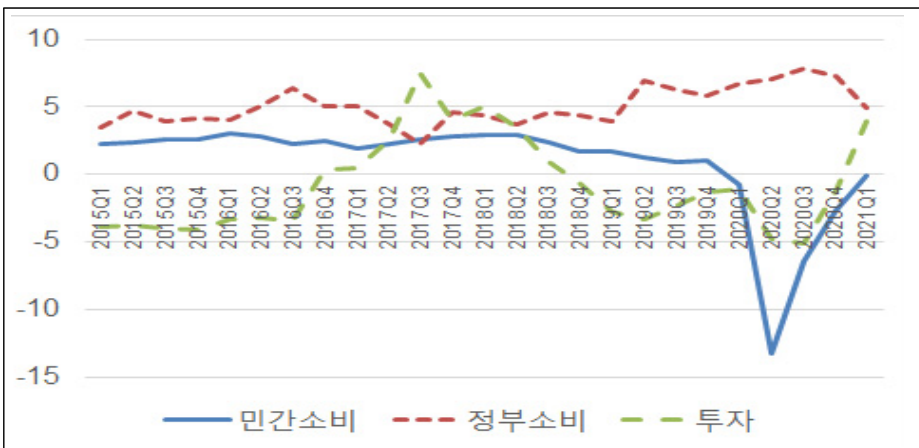
[그림 4-3] 호주의 실질 GDP 성장률 (상: 분기 성장률, 하: 연 성장률)



출처: 분기별 성장률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의 실질 GDP를 바탕으로 저자계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Note: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 주목해 볼 점은 정부 소비의 증가로, 민간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정부 소비는 7% 상승
- [그림 4-5]에서의 호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COVID-19 시기 호주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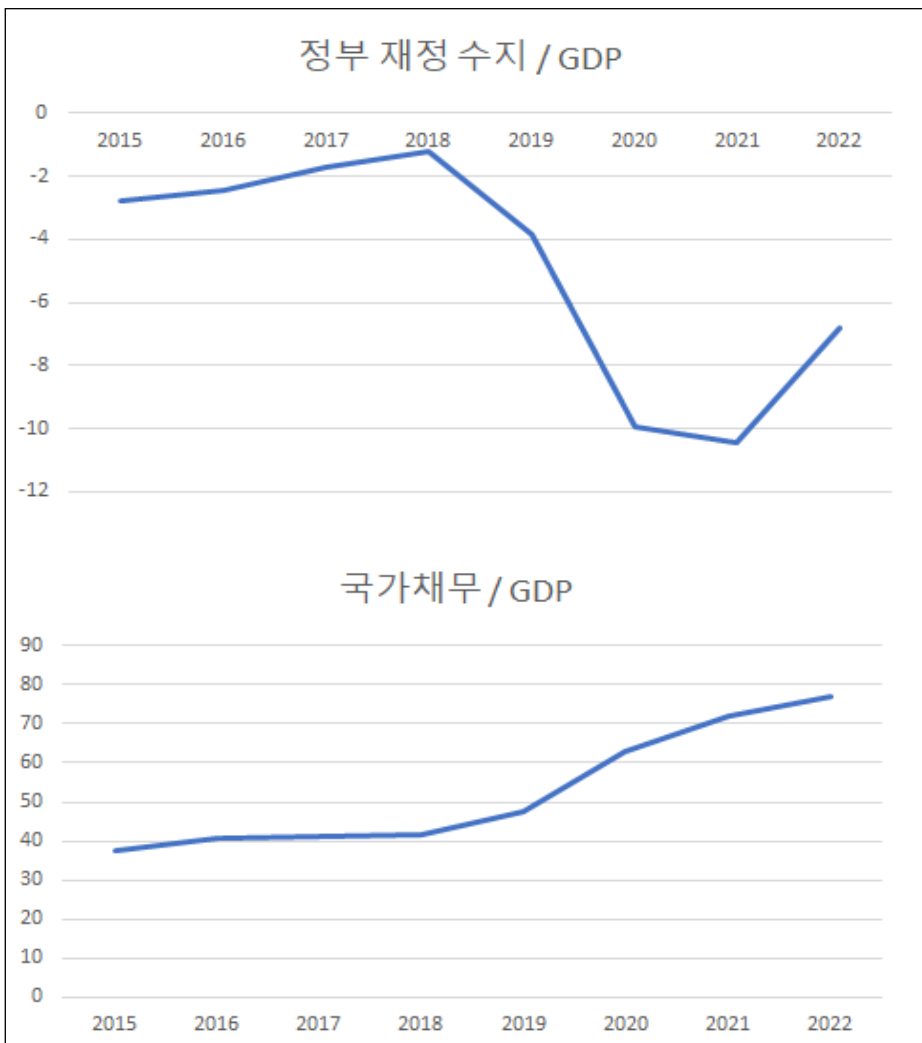
[그림 4-4] 호주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2020년 호주 정부는 GDP 대비 9.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10.4%까지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도 역시 6.8%의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9년 47.5%에 불과하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20년 63.1%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림 4-5] 호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Note: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호주 경제는 2021년에는 4.5% 수준의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표 4-1>은 코로나로 인해 전체 경제가 받은 충격과 관광업계가 받은 충격을 비교
  - 2018-2019 회계연도와 2019-2020 회계연도를 비교하면, 총생산 측면에서는 전체 경제가 -0.3% 정도 타격을 받는데 비해, 관광업계는 -18.9%의 큰 폭의 피해가 나타남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락다운으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가 관광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같은 기간 호주 경제 전체의 고용은 0.1% 상승한 반면 관광업계는 6.6% 감소하였으며, 노동시간 역시 전체 경제에서는 0.8% 감소한데 비해 관광업계는 10.9% 큰 폭으로 감소

〈표 4-1〉 호주의 관광산업과 전체 경제 피해 비교  
(2018-2019 회계년도 대비 2019-2020 회계년도)

	관광 산업	전체 경제
실질 GDP	-18.9%	-0.3%
고용 인원	-6.6%	0.1%
근로시간 지수	-10.9%	-0.8%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Tourism Satellite Account 2019-20 financial year

- <표 4-2>는 코로나로 인한 호주 경제의 충격을 관광업계가 집중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호주 정부는 관광업계를 타겟으로 한 지원책을 내 놓고 있음

## 나. 뉴질랜드의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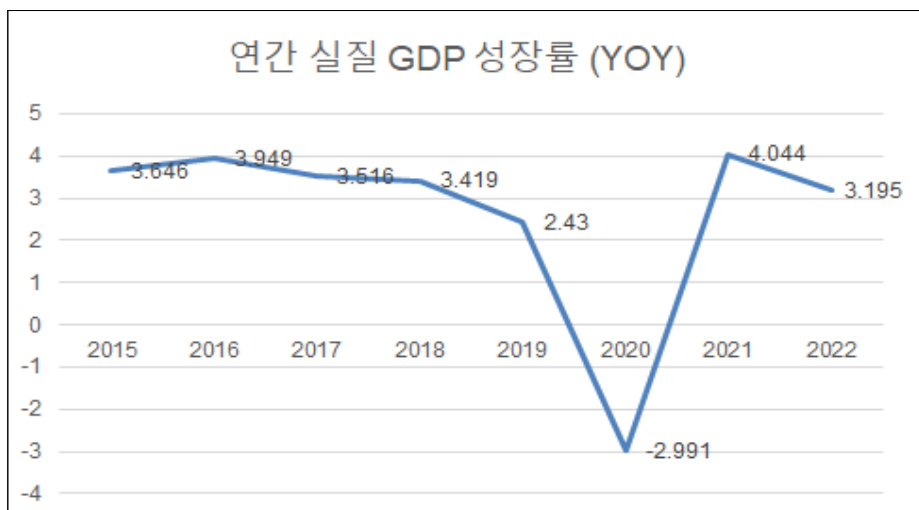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 연 3%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약 1.0% 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코로나 확진자 수는 성공적으로 관리한 반면, 강력한 산업 제한조치와 락다운 정책의 결과 큰 폭의 성장 저하를 감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림 4-6]은 뉴질랜드의 분기별,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코로나 이전 연 3%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2분기에서는 -9.2%의 GDP 감소를 경험하는 등, 연 -3%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 코로나 확진자 수는 성공적으로 관리한 반면, 강력한 산업 제한조치와 락다운 정책의 결과 큰 폭의 성장 저하를 감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림 4-7]은 뉴질랜드 GDP의 지출측면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아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는 정부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응한 측면은 호주와 동일하나, 정부 지출의 증가 규모가 호주에 비해 적은 점이 다름
  - 2020년 2분기 민간 소비는 최대 -11.1%, 민간 투자는 -22.5% 감소하였다. 다만 민간 소비와 민간 지출이 2020년 3분기부터 회복세에 들어섬
  - 반면, 수출은 2021년 1분기까지도 전년동기대비 -19%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이는 강력한 출입국 차단조치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적자형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 [그림 4-8]은 뉴질랜드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2020년 -4.4%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4%, -3.5% 수준의 재정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전 85%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20년 103.7%까지 상승한데 이어 2022년까지 109.1% 수준으로 더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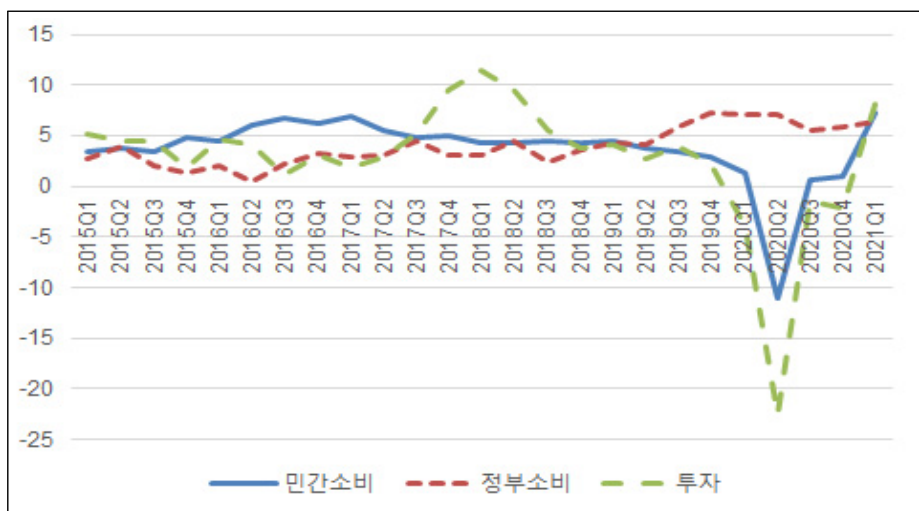
[그림 4-6] 뉴질랜드 실질 GDP 성장률 (상: 분기 성장률, 하: 연 성장률)



출처: 분기별 성장률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의 실질 GDP를 바탕으로 저자계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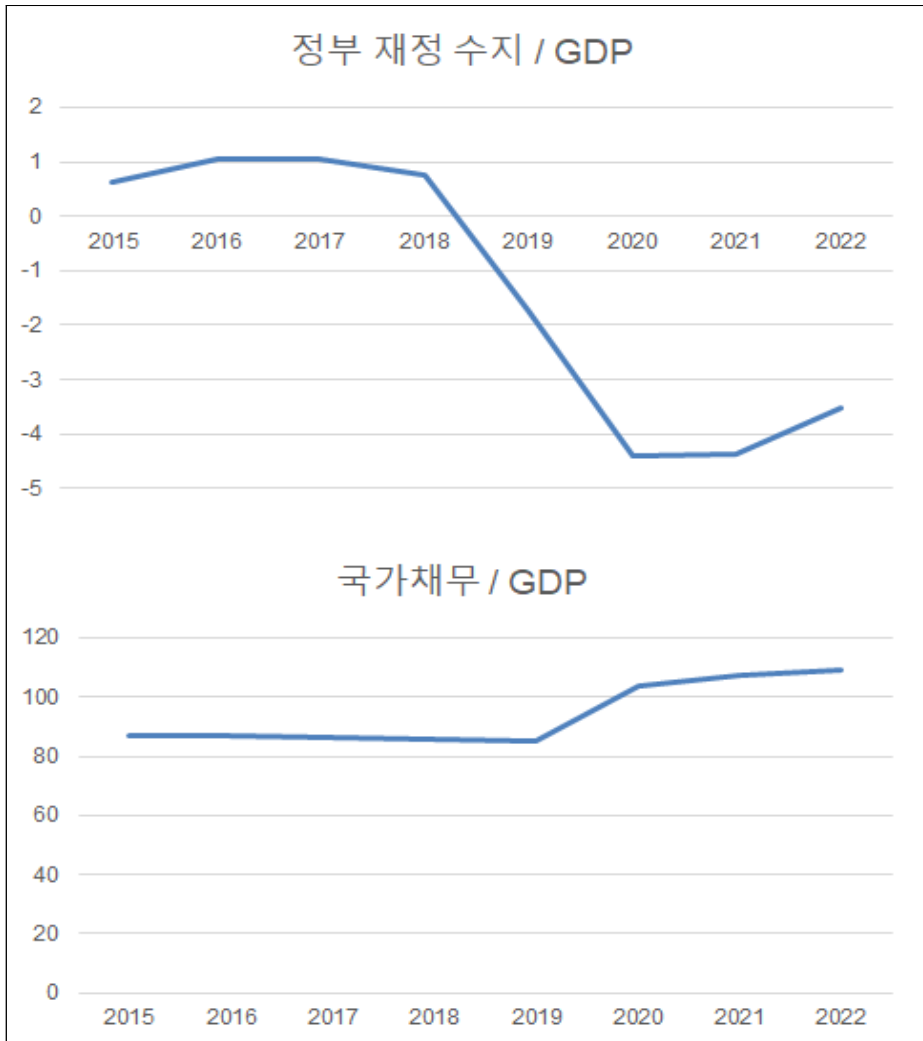
Note: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그림 4-7] 뉴질랜드의 GDP 지출부문별 성장률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그림 4-8] 뉴질랜드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Note: 2021년부터 IMF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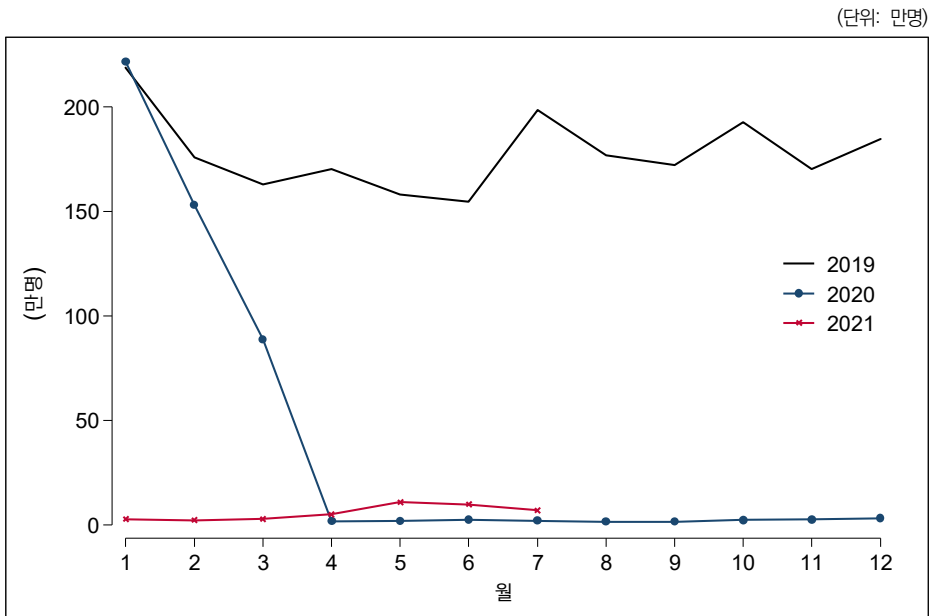
## 제2절 호주·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1. 호주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가. 출입국 정책

- 인바운드 관광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와는 달리, 호주는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모든 비시민(non-citizen)과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였으며(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0), 해당 조치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그림 4-9] 호주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자료: BITRE (2021)



-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림 4-9]에서 호주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는 2020년 3월 이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10월 6일 현재, 호주를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함(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1)
  - 호주 시민(Australian citizens)
  -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s)
  -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s)
  - 적어도 출발하기 14일 전까지 뉴질랜드에 있던 여행자(travellers who have been in New Zealand for at least the 14 days before the date of departure)<sup>23)</sup>
- 예외적으로 뉴질랜드와는 2021년 4월 19일 'Trans-Tasman'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였으나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sup>24)</sup>
  -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1)는 뉴질랜드와의 격리 면제 여행(quarantine free travel)을 2021년 10월 12일 오후 11:59분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함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73년부터 양 국가의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 (TTTA)'를 체결하고 있음<sup>25)</sup>
  - 그 외의 상황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를 자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은 타국 사례와는 궤를 달리함
- 트래블 버블이 호주의 인바운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영향은 미미

## 나. 관광사업체 지원

- 호주는 중앙정부와 함께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음

23) 쿡 제도(Cook Islands)와 니우에(Niue)는 여기 포함되지 않음

24)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바다가 'Tasman Sea'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

25)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다르며, 호주가 영국의 자치령(dominion) 시절이던 1900년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 6조에서도 뉴질랜드가 호주의 한 주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1)<sup>26)</sup>

- 중앙정부 세제 지원
  - 미납세액 이자 면제·유예, 분할납부 등(Australia Taxation Office, 2021)
-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Recovery for Regional Tourism Program)
  - 2020년 9월 27일, 호주 정부는 5천만 달러 상당의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발표
  - 이 자금 지원은 국제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9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COVID-19 충격으로 인해 피해가 큰 지방, 지역사회, 산업 경제를 돕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COVID-19 피해보상과 회복 기금(COVID-19 Relief and Recovery Fund)”의 첫 번째 지원 내용
  - 이 기금을 통해 내국인들의 관광 수요를 높이고, 해외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광·항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Tourism and Aviation Network Support Program)
  - 2021년 1월 호주 정부는 12억 달러 상당의 관광 항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 이 프로그램은 8십만여 이상의 항공편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여 국내 항공 여행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2021년 11월 30일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포스트 COVID-19 시기의 미래 관광산업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Develop your workforce)”도 제공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관광업에서의 커리어 개발, 지역 관광 노동 인력의 채용, 해외 관광 노동인력의 채용, 계절적인 노동 수요 대처, 관광 스태프에 대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부와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관광업계의 숙련 노동인력(skilled tourism workforce)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26)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1), Greig and Watkins (2020) 등을 참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 미래 계획의 일부로 정부는 관광업계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업계의 필요에 대해 대응
- 주목할 만한 세부사업으로 호주정부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8,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감염 통제 훈련 기금'(Infection Control Training Fund)을 설립하여 전국에 산재한 고객 대면 사업체(customer-facing businesses)의 재개지원을 위해 무료 또는 낮은 요금(fee free or low fee)로 감염 통제 훈련 실시<sup>27)</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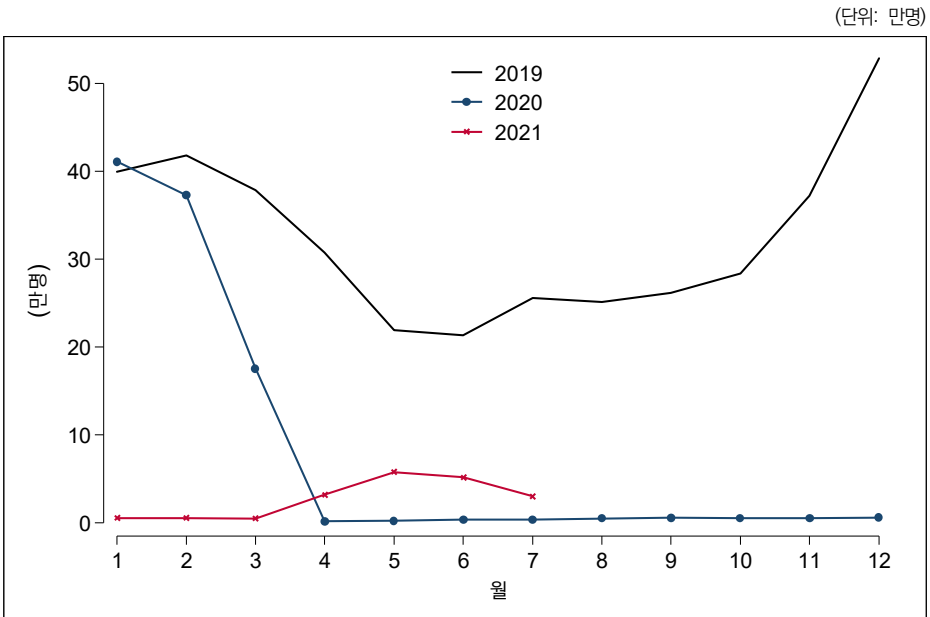
27) 8,000만 호주달러는 한화로 약 700억원 수준에 상응

## 2. 뉴질랜드의 국제관광 재건정책

### 가. 출입국 정책

- 뉴질랜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국경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4-10] 뉴질랜드의 인바운드 관광 추이, 2019-2021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n.d.)

- 코로나19 초기의 뉴질랜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20년 2월 2일부로 중국 본토를 여행하거나 중국 본토를 경유한 외국인의 뉴질랜드 입국을 제한하였음
  - 2020년 3월 19일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권고('Do not travel' advisory)를 발령하였으며, 이는 쿡 제도를 제외한 모든 해외 여행지에 적용됨
  - 2020년 4월 9일에는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의 자가 격리 의무를 부여함

- [그림 4-10]에서 2021년 4월 이후로 약간의 반등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전적으로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 체결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호주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양 국가의 평균적인 인바운드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으로, 2019년 호주의 월 평균 인바운드는 약 178만명인 반면에 뉴질랜드의 인바운드는 약 32만명 수준
  - 호주에서 출발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한 호주·뉴질랜드 국적자는 트래블 버블 체결 직전인 2021년 3월 276명에서 트래블 버블이 체결된 4월에는 12,44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동년 5월에는 27,330명 수준에 도달
  - 그러나 호주와 4월 19일 트래블 버블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중단되었음<sup>28)</sup>
  - 빈번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7월 23일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시점인 2021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중단된 상황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1년 10월 12일에 재개될 예정

## 나. 관광광사업체 지원

- 코로나 사태 이전 관광업은 뉴질랜드 수출의 20.1%를 차지하고, GDP에 대한 직접 기여만 고려해도 뉴질랜드 전체 GDP의 5.5% 수준이 되며, 간접적으로 추가적인 GDP의 3.8% 기여가 있을 정도로 뉴질랜드에 있어 중요한 산업임<sup>29)</sup>
- 따라서 뉴질랜드 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에서는 2020년에 4억 달러 규모의 관광 회복 패키지(Tourism Recovery Package)를 시행한데 이어, 2021년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회복, 그리고 재건 계획(Tourism Communities: Tourism Support, Recovery, and Re-set Plan)을 시행하고 있음<sup>30)</sup>

28) 주로 뉴질랜드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estern Australia) 사이의 격리 면제 여행이 수시로 중단되었으며, 5월 6일에는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뉴사우스웨일스주)와의 격리 면제 여행도 중단

29) <https://www.tia.org.nz/assets/Uploads/4-out-of-every-10-tourism-jobs-lost-in-last-year-survey-shows.pdf>

30) <https://www.mbie.govt.nz/immigration-and-tourism/tourism/tourism-recovery/tourism-communities-support-recovery-and-re-set-plan/>

〈표 4-2〉 뉴질랜드의 2020년 관광 회복 패키지 예산

(단위: 뉴질랜드 달러)

Strategic Tourism Assets Protection Programme (STAPP)	217,328,908	
STAPP Grants		66,352,902
STAPP Loans		104,276,006
Regional Tourism Organisations		20,200,000
Inbound Tour Operators		18,500,000
Loan administration costs		8,000,000
Tourism Transitions Programme	15,000,000	
Digital Capability	10,000,000	
Regional Events Fund	50,000,000	
New Zealand Māori Tourism	12,000,000	
Department of Conservation waiver	19,678,000	
Tourism Futures Taskforce	486,772	
MBIE support costs	1,750,000	
Total funds committed to the Tourism Recovery Package	326,243,680	
Total underspend of the Tourism Recovery Package	73,756,320	

출처: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n.d.)

- 먼저, 2020년 지원은 전략적 관광자산 보호 프로그램 (Strategic Tourism Assets Protection Program; STAPP), 관광 전환 프로그램 (Tourism Transition Programme), 디지털 역량 지원(Digital Capability), 지역 이벤트 기금 (Regional Events Fund) 등으로 구성
  - 여기서 전략적 관광자산이란 관광 사업체(tourism businesses), 인바운드 여행사(Inbound Tour Operators; ITOs), 지역 관광기구(Regional Tourism Organisations; RTOs)를 의미
  - 전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관광자산 보호 프로그램(이하 STAPP)은 보조금(STAPP Grant), 대출(STAPP Loans), 지역관광기구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뉴질랜드의 디지털 역량 강화(Digital Capability) 사업

- 디지털 역량 강화(digital capability) 사업은 뉴질랜드 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에 의해 수립된 관광 회복 패키지(tourism recovery package)의 일환
- 실제 관리는 관광산업 공식 인증기구인 퀄마크(Qualmark)와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원 사업은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웹 사이트 성능 개선(website performance), 검색 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sation; SEO), 소셜 미디어 콘텐츠 및 창작(social media content and creation) 등
- 지식 및 실무적 역량 강화(to improve knowledge and practical capabilities)를 위해 특정한 개발 영역에 초점을 둔 워크숍을 개최

- 뉴질랜드의 2020년 관광 지원에서 그 외의 특징으로 지역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성격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는 관광업 종사자 중 마오리족(Māori)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
  - 1,000만 달러 규모로 뉴질랜드 마오리 관광 지원(New Zealand Māori Tourism)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 주된 사업 내용은 마오리 관광 여행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체 지원, 연구, 멘토링 등
- 2021년의 관광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직접적으로 5개의 지역 사회(community)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대상 지역) 퀸스타운 레이크(Queenstown Lakes), 사우스랜드(Southland), 카이코라(Kaikōura), 맥켄지(Mackenzie), 웨스트랜드(Westland)
  - 이 지역들은 국제관광 의존도가 높아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컸음
  -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회심리적(psycho-social or mental well-being)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 지원금, 관광업 킥오프 펀드(tourism kick-off fund) 등이 있음
  - 이외에도 2020년에 시작한 전국단위의 지역관광기구 지원(Regional Tourism Organism), 관광 전환 프로그램 (Tourism Transition Programme) 등도 지속하고 있음
- 대출 프로그램
  - 소기업 현금 흐름 스킴(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중소기업 또는

조직에 연 3% 금리로 1만 뉴질랜드 달러 + 1,800 뉴질랜드 달러 × 상근 등가  
근로자(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대출(Inland Revenue, 2021)

■ 세제 지원

- 소득세액 공제(income tax deductions), 납부 유예 등(Inland Revenue, 2021)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제5장

## 정책비교 및 시사점



## 제1절 정책비교

-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초기부터 적극적인 출입국 봉쇄 조치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방역 성과를 보여 온 호주·뉴질랜드와, 보다 완화적인 출입국 정책을 사용하여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아일랜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

### 가. 출입국 정책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출입국 정책을 펼친 영국·아일랜드가 호주·아일랜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많은 경향성 관측
  - 국경을 개방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국내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락다운과 경제적 피해로 국경 개방에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sup>31)</sup>
- 또한 국경 개방에 있어 신호등 체계와 백신 인증서 가운데 어느 정책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인원만이 이동하는 트래블 버블에 비해서는 인바운드 회복의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보임
  - 연구 대상인 모든 국가는 백신 인증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라는 점도 중요
- 영국·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 사례를 비교하면, 국경 개방의 적극성은 경제적 피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영국은 적극적으로 국경 개방을 시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경제 성적이 좋은 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는 국경 개방에 소극적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

31) 정책 효과 식별이 완전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시적인 분석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방법론에 입각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국제관광을 재개하였던 2020년도에도 일정한 수준의 인바운드 변화를 보임

- 또한 아일랜드는 2021년 7월부터 인바운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자  
기의지와 관련이 낮은 유럽연합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 도입의 영향으로 보임
- 경제적 피해가 작은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광 사업체의 막대한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임
- 각국의 출입국 정책이 국제관광 성과에 미친 영향의 식별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책이 국제 관광객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함
  -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정책은 양국의 여행객 교  
류를 허용해, 관광 수입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 뉴질랜드의 경우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의 국가별 관광객을 비교해 보면,  
트래블 버블 협정이 맺어진 호주와 쿡 아일랜드(cook islands)로부터의 관광객  
은 각각 3,452%, 1,045% 증가한데 비해, 그 외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입국은  
62% 증가에 그침
  - 영국의 경우 트래블 버블과 신호등 체계를 가동한 기간, 국제 관광객 입국이 현  
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일랜드는 국제 관광객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2021년 7월 19일 유럽연합의  
코로나19 인증서를 도입하면서 국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나. 관광사업체 지원

- 모든 국가가 관광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재정을 사용한 직접적인 지원(피해보상, 고용지원 등)과, 세제상 혜택(세금 유예,  
일시적인 감세 등), 대출 보증처럼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한 만큼, 관광산업 정책에서도 지원 주체나 지원  
목적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차이점이 나타남
  - 앞에서 나열한 것처럼 지원의 정책적 형태는 다양하고, 국가별로 재건정책의 주  
체도 관광당국, 재무부처·산업부처, 지방정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이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코로나 제제 지원 프로그램(CRSS), 지역 관광 회복 프로그램(recovery for regional tourism program), 전략적 관광자산 보호 프로그램(strategic tourism assets protection program) 등 코로나19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이 다수
- 영국은 부가가치세 인하, 자격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대한 사업세 감면 지속(a continuation of business rates relief for eligible properties)처럼 관광 사업체들이 이윤(profit)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sup>32)</sup>
- 또한 영국은 2022년에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식(Her Majesty's Platinum Jubilee), 영연방 (스포츠) 대회(Commonwealth Games), 페스티벌 영국\* 2022(Festival UK\* 2022)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인바운드를 유치할 계획
- 또한 관광사업체 지원의 목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world-leading)하는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으로 설정
  - 영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관광산업이 그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영국 전역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
  - 아일랜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행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려 하고 있으며 (Tourism Recovery Taskforce, 2020), 'Origin Green'처럼 국가 주도로 관광과 타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다. 위드 코로나

- 특히, 주목하여야할 점으로 '21.10월 시점에서 모든 대상 국가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으며, 국경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까운 시기에 국경을 개방할 예정
  - 국가별 위드 코로나 계획을 분석 순서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은 이미 지난 '21.7월에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으며, 방역을 위한 대부분의

32) 부가가치세는 최종 매출에 비례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인하는 자연스럽게 이윤 증가로 귀결됨

법적 제한들이 해제되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 만명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음(Shearing and Lee, 2021; 이보람, 2021)<sup>33)</sup>

- 그러나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Khan, 2021),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입국자가 정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여야 하는 적색군 국가(red list)에 해당하는 국가를 7개까지 줄인 바 있음
- 유럽에서 가장 긴 코로나19 봉쇄(COVID-19 lockdown) 조치를 시행하였던 아일랜드는 '21.10월에 거의 모든 코로나19 제한(almost all COVID-19 restrictions)을 폐지할 계획으로, 10월 22일부터 주점과 레스토랑의 백신 인증 요건이 없어짐(Humphries, 2021)<sup>34)</sup>
- 9월 10일 아일랜드 Health Service Executive CEO Paul Reid가 성인의 90%가 접종을 완료하였고 부분 접종자는 92.5%에 이른다고 발표하여(Reid), 사실상 고령자와 아동을 제외한 전국민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황
- 호주는 '20.3월 이후 가장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호주인들의 해외 출입국도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었으나, '21.11월부터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는 주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New York, 김표향, 2021)<sup>35)</sup>
- 뉴질랜드 역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Menon, 2021), '21.10.4일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가 제로 코로나 전략(zero-COVID strategy)에서 위드 코로나(live with the virus)의 전환을 공식 선언(Wesetcott, 2021)
-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21.9.30일자로 1차 접종 기준으로는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접종 완료는 영국·아일랜드와 호주·뉴질랜드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국경 개방 등 정책 시행도 중간 수준의 속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역시 10월 말에는 백신접종 완료가 성인의 80%에 달할 전망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경 재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임소형, 2021)

33) 영국은 모델링을 통해 감염자는 증가하지만 사망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겨울보다 여름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Shearing and Lee, 2021)

34) 아일랜드는 '21.7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커피숍, 주점, 레스토랑 등에서의 실내 식사가 금지되었으며,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실내 식사 허용(Humphries, 2021)

35) 이는 그동안 봉쇄(lockdown) 일변도의 정책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기'(live with the virus)로 정책이 전환됨을 시사

- 현재, 11월 15일부터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이 시행될 계획이지만(김정환, 2021),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4% 수준인 만큼, 추가적인 타 국가와의 국제관광 재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별 정책의 차이와 국제관광의 변화를 다음 <표 5-1>로 정리할 수 있음

〈표 5-1〉 국가별 국제관광 재건정책과 국제관광 최신 동향

(단위: 개월, %)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20년~'21.9월 코로나 확진자	7,843,887 (11.50%)	389,932 (7.83%)	107,181 (0.42%)	4,292 (0.09%)	313,773 (0.61%)
'20년 경제성장률	-9.8%	2.5%	-0.3%	1.0%	-0.9%
백신 인증서	도입 없음 (정치권 반대)	既도입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도입 예정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도입 예정 (Digital Vaccination Certificates)	-
출입국 정책	트래블 회랑 신호등 체계 적색국가 목록	EU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	전면 봉쇄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	전면 봉쇄 (뉴질랜드-호주 트래블 버블)	전면 봉쇄
인바운드 증감					
'20.1분기	-12.8%	-20.2%	-16.9%	-19.8%	-46.9%
'20.2분기	-98.4%	-98.1%	-98.7%	-99.0%	-97.9%
'20.3분기	-83.4%	-86.7%	-99.1%	-98.2%	-95.7%
'20.4분기	-85.2%	-90.4%	-98.5%	-98.6%	-95.9%
'22.1분기	-91.4%	-94.2%	-94.7%	-98.7%	-94.8%
'21.2분기	-93.1%	-94.2%	-98.7%	-80.9%	-95.2%
'21.3분기	-89.3%	-73.2%	-96.5%	-88.2%	-94.1%
관광사업체 지원					
고용	○	○	○	○	○
대출	긴급대출 및 정부보증	-	-	긴급대출 및 정부보증	코로나19 대출
세제	영업세 면제, 부가세·소득세 유예	부가세율 할인, 부가세 납부 유예	분할납부, 납부 유예 등, 지역(주)별로 지원 상이	소득세 공제 납부 유예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 지원금	○	○	○	○	○
그 외	지역사회 및 지역관광 추진조직 지원	-	-	마오리족 지원	
위드 코로나	선언	선언	선언	선언	×
백신 접종률 (접종 완료)	71.6% (65.8%)	75.7% (73.9%)	64.8% (44.2%)	67.8% (39.6%)	76.7% (50.1%)

자료: 출입국 정책 인바운드의 각 분기별 수치는 '19년 동기대비 변화를 의미함. 단, '21년 3분기의 경우 데이터상 비교 가능한 최대 시점이 기준으로, 영국은 7월, 아일랜드는 8월, 호주는 7월, 뉴질랜드는 7월, 한국은 8월까지 포함함. 인바운드는 국가에 따라 항공 여객 또는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의미. 음영은 출입국 정책에 의해 국제관광객이 증가한 기간을 의미.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용 보조금으로 명칭 통일. 백신 접종률은 '21.9.30일 기준.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가. 부분적인 국경 개방과 국제관광 재개

- 분석 대상인 모든 국가는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드 코로나 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연내에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에 걸맞는 수준의 국경 개방을 고민할 필요
  - 영국은 '21.7월에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 하였으며(Shearing and Lee, 2021; 이보람, 2021), 아일랜드도 10월에 거의 모든 코로나19 제한을 해제할 계획(Humphries, 2021; 김리안, 2021)
  - 2022년 중반까지 국경을 철통 봉쇄할 계획이었던 호주도 올해 이내에 국경을 개방할 계획이며(Paybarah, 2021; 김표향, 2021), 뉴질랜드도 그동안 추진하였던 코로나 제로 전략(zero-Covid strategy)을 최근 포기함(Westcott, 2021, 김윤나영, 2021)
  - 그 동안 강한 수준으로 국경을 통제하던 호주·뉴질랜드는 백신 인증서 도입중
  -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호주·뉴질랜드도 '코로나 제로'를 고집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 역시 최근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제관광 역시 백신 인증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함께 부분적인 재개를 검토할 필요

### 나. 국제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인증서 및 상호 인정

- 양 국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제한된 인원만 이용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보다, 단방향으로 검역·격리를 차별화하는 영국의 신호등 체계나 아일랜드와 같은 상호 백신 인증서 인정을 고려할 필요
  - 영국·아일랜드 두 국가 모두 호주·뉴질랜드 보다 빠른 국제관광 회복이 나타남

- 단방향 정책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된 국경 개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 양방향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중단되며, 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상호 동의가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상황은 수시로 급변하는데 반해, 타 국가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외교적 비용이 소모되므로 상황 대응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백신접종 상호 인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시범적으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코로나 인증서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과의 상호 인정은 방한 관광객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되면서, 향후 완전한 국제관광 재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19년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원(1,095,256명)은 전체 인바운드의 약 6.3% 수준에 불과하여 상호 인정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유럽 관광객은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한다는 점도 중요
  - 일부 국가나 지역과의 상호 인정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시기별 백신접종 상호 인정 계획의 수립·실천 필요<sup>36)</sup>
  -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외국 관광객들의 백신 접종여부를 백신 인증서로 확인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함

#### 다. 관광 분야에 특화된 추가 지원 및 인센티브 설계

- 우리나라가 고용, 대출, 세제 모든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피해가 제일 심각한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동시에 관광 분야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와 정책이 필요
  - 해외처럼 관광 사업체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바람직
  -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코

36) 그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입장을 선회하여 2021년 10월 28일 0시 이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발표(外務省, 2021)

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sup>37)</sup>

- 영국과 뉴질랜드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기술 및 전문지식(digital skills and expertise)을 발전시킬 계획·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디지털 마케팅 수용과 이를 통한 새로운 고객의 유치가 산업에 회복력(resilience)을 불어넣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0)
-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관광산업 내의 인력을 재교육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sup>38)</sup>
- 장기적으로는 단순 개별 프로젝트의 지원보다는, 인적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관광 분야의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우수 인력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 따라서 수 개월 이내에 결과물이 나오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1-2년 수준의 교육을 통해 관광·IT 양 업계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인재 양성 필요<sup>39)</sup>

## 라. 회복 가능성 높은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 마련

- 또한 관광산업 지원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원이나 일회성의 지원 보다는,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계기업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
  -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피해보상보다는, 미래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은행의 2020년 보고서(한국은행, 2020)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는 증가하였지만 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부족한 운전자금의 대출 조달 비율이 늘어났다고 추정
  - 그리고 동 보고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을 지원할 때, 자영

37) 국제관광을 중계하는 'online travel agency'처럼 일반적인 기술기업과의 구분이 어려운 영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38) 뉴질랜드와 같은 일회적인 프로젝트 지원보다는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프로젝트 베이스의 비논문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39) 이러한 수준의 인재 양성은 비단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효용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추진 가능성이 높음

업자의 재무상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인지, 아니면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

-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사업 영위가 어려운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코로나 19가 종료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지원책이 필요함<sup>40)</sup>

---

40)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최현경 외, 2017),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관광산업에서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에서도 정상적인 사업체의 고용과 생산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 참고문헌

- 고재원. (2021, June 9). 국내 백신 접종자 7월부터 '트래블 버블'로 싱가포르·태국·괌 여행간다.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7173>
- 김정환. (2021, October 9). 접종 완료자 내달 15일부터 싱가포르 격리없이 여행.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0/09/MRL4U3CNJB6LMUVXLRALD3I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0/09/MRL4U3CNJB6LMUVXLRALD3IZ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김정희. (2021, August 20). 홍콩, 한국 백신 접종 증명 불인정...미국·일본은 인정.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108200436375297](https://www.ytn.co.kr/_ln/0104_202108200436375297)
- 신용석. (2020).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수시연구 2020\_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소형. (2021, October 5). 성인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90% 넘었다... 힘 받는 '백신 패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516430000526>
- 최현경, 박진, 김영민, 김주영. (2017).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2017-838.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2020). 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12월).
- 外務省. (2021, September 2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新たな水際対策措置 (ワクチン接種証明書保持者に対する入国後・帰国後の待機期間について).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1C128.html](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1C128.html)
- Andrews, K. (2021, September 13). Joint media release with the Hon Stuart Robert - New digital platform to support reopening of the international border [Media release]. Australian Government.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KarenAndrews/Pages/new-digital-platform-to-support-reopening-of-the-international-border.aspx>
- Air Transport Bureau. (2021, September 22). Effects of Novel Coronavirus

(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PDF slides].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1, October 6). Corona-virus (COVID-19) advice for international travellers.
-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1, October 11). COVID-19. <https://www.ato.gov.au/general/covid-19/>
- 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earch Economics (BITRE). (2021). Monthly airline performance [Data set]. [https://www.bit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international\\_airline\\_activity\\_monthly\\_airline\\_performance\\_0721.xlsx](https://www.bit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international_airline_activity_monthly_airline_performance_0721.xlsx)
- Central Statistics Office. (n.d.). Overseas Travel. Retrieved October 3, 2021, from <https://www.cso.ie/en/statistics/tourismandtravel/overseastravel/>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 The Tourism Recovery Plan.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2020, September 17). Updates to Green List [Press release]. <https://www.dfa.ie/news-and-media/press-releases/press-release-archive/2020/september/updates-to-green-list.php>
- Dublin Airport. (2020a, October 12). Latest Travel Green List. <https://www.dublinairport.com/latest-news/2020/09/17/new-government-green-list-to-take-effect-from-september-21>
- Dublin Airport. (2020b, November 9). Irish Government Adopts EU Traffic Light System. <https://www.dublinairport.com/latest-news/2020/11/09/irish-government-adopts-eu-traffic-light-system>
-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n.d.). Maps in support of the Council Recommendation on a coordinated approach to travel measures in the EU. Retrieved October 5, 2021, from <https://www.ecdc.europa.eu/en/covid-19/situation-updates/weekly-maps-coordinated-restriction-free-movement>
- European Commission. (2021, June 1). EU Digital COVID Certification.
- ICEF Monitor. (2020, July 29). Ireland announces 15-country “Green List” for quarantine-free travel; ELT sector calls for support against 80% revenue shortfall. <https://monitor.icef.com/2020/07/ireland-announces-15-country-green-list-for-quarantine-free-travel-elt-sector-calls-for-support>

rt-against-80-revenue-shortfall/

- Greig, B., & Watkins, D. (2020). Tax insights: Tax and business relief in response to COVID-19. Deloitte.
- Inland Revenue. (2021, July 12). COVID-19 Business and organisations. <https://www.ird.govt.nz/covid-19/business-and-organisations>
- Keep, M., & Ward, M. (2020, September 4). Support for the Tourism Industry after the Covid-19 lockdown. House of Commons. Number CDP 2020-0084.
- Khan, A. J. (2021, October, 8). England reduces its 'red list' for travel restrictions to just seven countries. <https://www.nytimes.com/2021/10/08/world/europe/england-covid-red-list-countries.html>
- McClure, T. (2021, June 28). New Zealand may exclude NSW from travel bubble as Covid cases rise in Australia.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jun/28/new-zealand-nz-travel-bubble-nsw-may-be-excluded-australia-covid-cases-rise>
- McGrath, D. (2020, March 19). Closed borders and flight bans: Countries are taking extraordinary measures to tackle Covid-19. TheJournal.ie. <https://www.thejournal.ie/borders-coronavirus-flights-5050962-Mar2020/>
- Menon, P. (2021, September 23). New Zealand's Ardern says lockdowns can end with high vaccine uptake.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new-zealands-ardern-says-lockdowns-can-end-with-high-vaccine-uptake-2021-09-23/>
-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n.d.). Tourism recovery. <https://www.mbie.govt.nz/immigration-and-tourism/tourism/tourism-recovery/>
- Ministry of Health. (2021, October 20). COVID-19: Requesting proof of vaccination.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covid-19-novel-coronavirus/covid-19-vaccines/covid-19-requesting-proof-vaccination>
- Mathieu, E., Ritchie, H., Ortiz-Ospina, E., Roser, M., Hasell, J., Appel, C., Giattino, C. & Rod s-Guirao, L. (2021). A global database of COVID-19 vaccinations. Nature Human Behaviour, 1-7.
- Newell, B. (2021, August 26). Air passenger arrivals, July 2021.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 Rebuilding tourism for the future: COVID-19 policy responses and recovery.
- Osborn, A. (2021). Overseas residents in the UK and UK residents abroad: 2020 [Data se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leisureandtourism/datasets/overseasresidentsintheukandukresidentsabroad>
-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0, March 19). Border Restrictions [Media release]. <https://www.pm.gov.au/media/border-restrictions>
- Ritchie, H., Mathieu, E., Rod  s-Guirao, L., Appel, C., Giattino, C., Ortiz-Ospina, E., Hasell, J., Macdonald, B., Beltekian, D., and Roser, M. (2020).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Online Resource].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 Statistics New Zealand (Stats NZ). (n.d.). Visitor Arrival Totals (Monthly). Retrieved October 3, 2021, from <http://infoshare.stats.govt.nz/>
- Tourism Recovery Taskforce. (2020). Tourism Recovery Plan: 2020-2023.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21). COVID-19 and Tourism: An Update.
-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2020).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May 2020: Special focus on the Impact of COVID-19 (Summary).
-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2021). World Tourism Barometer. 19(3).
- Westcott, B. (2021, October 5). New Zealand to abandon zero-Covid strategy as Delta variant proves hard to shake. CNN World. <https://edition.cnn.com/2021/10/05/asia/new-zealand-ardern-covid-zero-intl-hnk/index.html>



---

# ABSTRACT

## **Rebuilding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The Cases of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Hyounjong Kim and Dong-Eun Rhee

The novel coronavirus has affected all economies and has severely hindered international tourism.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policies used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tourism in four countries: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These four countries share a similar cultural background and institutions like the use of the common law. Further, as these are some of the most developed and wealthy countries globally, most conditions are naturally or partially controlled, making it possible to concentrate on investigating their policy responses to COVID-19-related chang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All these governments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tourism sector through tax deductions, tax exemption, grants, and loans for attenuating the impact of COVID-19 and related lockdowns. Some governments want to make tourism sustainable by aiming for its recovery at the 2019 level. However, the policies for border crossing vary across countries. This report finds three reopen policies are observed: unilateral opening for qualified persons, COVID-19 digital certification, and reciprocal travel bubble. The report also compares policy environments and the related changes in visitor arrivals. Those policy responses might shed light on the future policy decisions of South Korea.

### **Keywords**

COVID-19 pandemic, Digital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tourism, Vaccine passport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김형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제5장 일부, 연구총괄

### 연구진

이동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제3장-제5장 일부, 공동연구

##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

발행인 김대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92-8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33>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형중(2021),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33>

